

## <竹溪別曲> 새로 읽기\*

정무룡\*\*

- I. 읽기 시각의 전환과 문제 제기
- II. 현대적 정비와 평석
- III. 텍스트의 시가사적 위상
  - 1. 경기체가 모형의 선용
  - 2. 표현기법들의 규범화
  - 3. 향토 예찬의 남상
- IV. 맺음말

### 【요 약】

학계의 경기체가 양식에 대한 홀대는 거의 소수의 해석 관점에 기인한다는 전제 아래 이 연구는 새로운 시각으로 <죽계별곡>의 분석과 이해를 시도했다. 이 작품에 민족의식이 내연한다는 고견은 필자가 동일 작가의 <관동별곡>을 해명하면서 안출했던 관점—<관동별곡>은 고장의 경물과 역사를 신임 수령에게 시로 계품 하던 관례를 고유의 가락과 시형으로 환생시킨 작품—의 후원자가 되었으며 동일한 분석 틀을 <죽계별곡>에도 전용할 수 있으리라는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 ‘민족의식에 기반한 애향심의 고취’가 이 작업의 기본 정신이다.

\* 이 연구는 2007학년도 경성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힘입어 수행되었음.

\*\* 경성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첫 연은 순흥의 중흥과 비상한 인물의 배출이 산수의 정기 덕택임을 노래했고, 둘째 연은 순흥에 산재하는 누정의 순력과 그 감흥 표백에 치중했다. 이 연의 후단은 전승도중 누락되었으며 결코 지금과 같은 표현은 아니었을 듯하다. 셋째 연은 순흥 고을민의 교육적 자부심과 교육열, 그리고 향교를 호기롭게 순행하는 수령의 행차를 그렸고, 넷째 연은 관능미 넘치는 기녀들이 ‘그대’의 방문을 갈구하는 정경을 형언했다. 끝 연은 사시佳景과 함께 나라를 중흥시켜 길이길이 태평을 누리자는 희구로 종결되었다.

<죽계별곡>·<관동별곡>은 <한림별곡>에 비해 작자와 창작시기가 비교적 분명하며 문자로 일찍 정착되었다는 면에서 문학사적 위상 정립에 귀중한 텍스트다. 근제는 이미 변조를 부릴 정도로 경기체가의 율격 모형에 익숙한 상태였다. 제5행의 2보격은 이 장르의 원상으로 파악된다. 매 연 제4행까지는 횡적으로 열거법이, 종적으로 초점화가 주요 수법인데 관물궁리를 삶의 지표로 삼았던 향유층의 의식의 투영으로 읽혀진다. 고향 예찬은 조선 전기 아류작의 양산을 촉진했고 시학을 달리하는 이중 장르에도 여파가 닿았다.

## I. 읽기 시각의 전환과 문제 제기

이 연구는 <죽계별곡>을 기존의 시각과는 달리 읽어 이 텍스트와 작가 安軸(1282~1348, 자는 當之, 호는 謹齋, 시호는 文貞)의 문학사적 좌표를 새로 설정하는 데 진력할 것이다.

한국문학사의 한 시기를 주도할 정도로 경기체가 양식은 문단을 풍미한 적이 있었지만<sup>1)</sup> 역설적이게도 연구는 상응하지 못했고 그 성과 역시 여타 갈래와 대등한 수준이라 보기는 어렵다. 갈래의

1) 조동일, 『한국문학통사』2(지식산업사, 05), 310면.

속성과 향유층의 인식 구도, 그리고 소수의 작품들에 그나마 성과를 내었을 뿐 나머지는 겨우 작품 소개나 해설 수준에서 담보하고 있는 형편이다. 우리가 주목하려는 <죽계별곡>도 예외가 아니다. 자산 安鼎福이 ‘경기체’라는 명명으로 갈래 분류를 시도한 이래<sup>2)</sup> 同途 여러분의 관련 논저에는 한결같이 논급되었지만 단편적이거나 부수적인 기술로 만족했다. 그들조차도 필자의 안목으로는 한정된 관점 위에 지엽적인 문제에서만 이견을 내었다고 여겨진다. 이런 국면에서 <죽계별곡>만을 논의의 대상으로 2편의 논문을 발표한 김창규<sup>3)</sup>와 <관동·죽계별곡>만을 다룬 고정희의 연구<sup>4)</sup>는 명심할 만하다. 전자는 훈고주석 방면에서, 후자는 새로운 해석 관점의 수립이란 면에서 기념비적이다. 이러한 업적들에도 불구하고 문학 텍스트가 다면적인 언어 구조물이며 그것은 연구결과의 누적으로 변동한다<sup>5)</sup>는 사실을 고려하면 <죽계별곡>의 연구는 겨우 시작단계에서 멈추었다고 하겠다. 학계가 그동안 경기체가 갈래를 냉대했다<sup>6)</sup>는 자성의 소리는 때문에 지극히 공정한 논평으로 들린다.

이렇듯 학계가 <죽계별곡>을 소원한 연유를 묻는다면 대답하는 이들은 각자의 입장이거나 처지에 따라 상이하겠지만 해석관점의 패쇄성을 드는 데는 대부분 동의할 듯하다. 텍스트를 읽어 낼 시각이 제한적이라 해석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고 업적을 낼 수 없음이 당연하므로 외면하거나 주변부만 건드리다 그만두었다 라는 판단이다. 연구열의 점화는 텍스트 인식의 틀을 산출하는 문제와 결부된다. 우

2) 安自山, 「朝鮮詩歌의 苗脈」 『別乾坤』(1929, 12월 호).

3) 金倉圭, 「竹溪別曲의 諸 問題」, 국어국문학 84(1980, 10), 194면 및 「竹溪別曲 評釋考」, 국어교육연구 12(경북사대, 1980), 29~30면.

4) 고정희, 「元 服屬期 新興사대부의 계급의식과 安軸의 경기체가」 『한국문화』 30(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02).

5) Rene Wellek & Austin Warren, 『Theory of Literature』(penguin books), pp. 152~7.

6) 박노준, 「시가 연구 방법론 數題」, 한국시가학회, 『한국시가연구』 제17(2005, 2), 11면.

리의 작업 역시 이 논리에 부응해야 할 터인즉 과거의 것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이 새로운 것의 도출을 계도해 주리라 본다.

경기체가의 효시 작품으로 치는 <한림별곡>의 작가를 최우가 정권을 농단하던 시기 정치권에서 추방되었거나 혹은 호강한 권세가에 아유하던 문인들로 보고 그들의 유흥적이고 퇴폐적인 일상 풍조를 이것으로 표출했다는 견해가 가장 먼저 대두했다.<sup>7)</sup> <죽계별곡>을 분리해서 언급한 일이 없으니 역시 동일한 입장이었으리라. 무인들의 집정 초기, 문벌귀족들이 목숨이나마 부지하고자 산하로 잠적할 것은 필연이다. 국가 경영의 필수 요원으로 문인들의 존재 가치를 절감한 무인들이 그들에게 순종하는 문인들을 선별적으로 기용할 것도 당위다. 계곡에서 은둔생활을 하든, 궁정에서 아첨으로 연명하든 방관자의 처지로 일순에 추락한 문인들이 과연 호사스런 향락적 정서에 도취할 수 있었을까는 의문이다. 현실적 율분과 곤궁의 대안으로 몽환적 세계를 형상했다 반박할 수 있겠으나 유학의 체질화를 지표로 삼았던 문인들에게는 개연성이 낮다 할 것이다. 더구나 ‘琴學士의 玉筍門生’에서 감수할 수 있는 이미지, 곧 견고한 지층을 생기 왕성하게 뚫고 나오는 죽순은 퇴폐나 향락의 정서와 거리가 멀다. 이런 심상은 오히려 모진 꺾박과 압제를 고난으로 극복한 인물의 환희, 성취감의 표현으로 해석함이 훨씬 자연스럽고 또 합리적이다. 하여 <한림별곡>을 ‘득의에 찬 신흥 관료, 신흥사대부들의 화려한 생활과 그 전망을 소리 높이 구가’<sup>8)</sup>한 작품으로 이해한 논평이 매우 설득적이다. 지방 중소 지주의 자제라는 신분적 한계와 무인들의 전횡이란 정치적 악조건을 유학적 교양으로 무장, 등과라는 수단으로 돌파해 선대들이 동경해마지 않던 중앙 정계 진출이란 꿈을 달성한 신흥 사대부들이 그

7) 조운제, 『한국문학사』(탐구당, 1981), 91면. 양주동, 『여요전주』(을유문화사, 1985), 230~1면.

8) 이명구, 『고려가요의 연구』(신아사, 1973), 110면.

런 감격과 장밋빛 미래를 가유했다는 것이다. <한림별곡>을 겨냥해 정립된 이 관점은 <죽계별곡>의 경우에도 ‘득의한 생활을 노래하였’<sup>9)</sup>으로 확인할 수 있듯 유지되었다.

어렵사리 중앙 정계로 진출한 신흥 사대부 계층이 자신들의 심미적 표현 욕구를 경기체가 양식으로 표현했다는 견해는 이후 경기체가 작품들을 읽는 지침이 되었으며 오랫동안 위력적이었다. 예컨대 <죽계별곡>을 ‘士夫들의 풍류적 생활상’<sup>10)</sup>의 묘사로 해석하거나, ‘자신의 가문이나 향촌 집단을 과시하고자 하는 사람들(사대부 계층...필자 주)’<sup>11)</sup>의 문학적 관습으로 분석한 연구들로 입증된다. 신흥사대부들의 특수한 미감과 감흥을 언술했다는 인식의 공유 위에 사소한 부분들에서 나름의 견해를 부가했다고 보아 무난할 듯하다.

예의 주장들은 시대에 따른 사대부들의 성격이 변화한 점을 간과했다고 판단된다. <한림별곡>에 등장하는 琴儀 외 8명과 근재가 동질적인 사회 계층 출신이며 유사한 경로로 중앙 정계에 입문한 점은 인정된다. 하지만 <한림별곡>이 창작되었다고 추단되는 시기의 지적 기풍과 <죽계별곡>이 산생될 무렵의 그것은 이질적이라는 점 두 텍스트의 해석에 고려되어야 한다. <한림별곡>의 창작 연대는 논란이 많으나 ‘1227년(고종 14)이 유력하다’<sup>12)</sup>. <죽계별곡>의 제작 시기는 1348년(충목왕 4)로 추정된다.<sup>13)</sup> 숫자상으로는 한 세기에 불과하지만 당대 고려 사회가 격동의 시기였음을 감안해야 한다. 이런 변혁기에는 하루가 다르게 사회나 사상이 변전했을 것이요 그 시대를 예민하게 호흡하는 지배층에게는 그 파장이 심각했을 것이다. 금의를 중심으로 형성된 집단은 유학적 생활 규

9) 이명구, 앞 책, 113면.

10) 김창규, 「별곡체가의 내면적 성격 고찰」 『국어교육연구』6(경북사대, 1974), 17면.

11) 박경주, 『경기체가 연구』(이회, 1996), 171면.

12) 조동일, 앞 책, 180면.

13) 金倉圭, 「竹溪別曲의 諸 問題」, 앞 논문, 194면 및 조동일, 앞 책 184면.

범의 확립 및 그 실천이 삶의 이념이었다. 때문에 그들은 유학 경전의 훈고 주석에 몰두했다. 문학 행위도 사장에 치중했다.<sup>14)</sup> 내심의 위안과 내세의 보장을 위해 불교 경전을 탐독했다. 이러한 지적 우월을 발판으로 정계에 진출해 인본정치를 구현함을 그들은 필생의 과업으로 설정했다. 그러나 근재가 활동하던 시대 지성인들은 저들과 다른 세계를 지향했다. 원이 통치이념으로 수용한 성리학에 잠심하는 한편 그것을 발판으로 제과에 급제함을 대단한 명예로 여겼다. 성리학을 수입해 고려에 보급, 정착시키는데 솔선했으며 성리학적 사유와 행위가 일상을 규율하는 사회의 도래를 꿈꾸었다. 불교가 배격될 것은 당연했다. 특이한 점은 이들이 고려의 고유한 문물제도와 전통, 나아가 국호가 권문세족과 그 추종자들에 의해 인멸될까 싶어 노심초사했다는 것이다. 근재가 충숙왕과 신하들 간의 의리를 환기시키고 이제현이 국호와 유풍의 계승을, 이곡이 고려 부녀 징발 금지를 각각 원 조정에 상소하는 면들이 호례가 되어 준다.<sup>15)</sup> 국가와 민족 문화 유산을 원 및 그 부용자들이 소탕하려는 책동에 분투했다 할 것이다.

두 집단의 위와 같은 구별은 소루할망정 <한림별곡>의 평석 시각을 근재의 두 작품에 전이하기 어렵다는 심증을 갖게 해 준다. 환언하면 <관동·죽계별곡> 평석의 준거를 새로 준비해야 할 숙제를 안겨준다는 것이다. 원복속기(1259~351)에 성리학을 익힌 신흥사대부들은 민족모순과 계급모순을 풀어야 할 과제로 상정했으며 치자는 자연에 내재하는 보편적 진리를 백성에게 매개하는 임

14) 충선왕이 이제현에게 학자들이 승려들에게 章句를 익히는 까닭을 묻자 그가 응대한 발언에서 관련되는 정보를 얻어 올 수 있다. <李齊賢>. 不幸毅王季年 武人變起 玉石俱焚 其脫身虎口者 逃遁窮山 輓冠帶而蒙伽梨 而終餘年 若神變悟生之類是也 其後國家 稍復文治 雖有志學之士 無所於學 皆從此徒 而講習之 故臣謂學者從釋子學 其源始此. 『고려사』권 110, 열전 권제 23.

15) 이들의 발언 내용은 줄고, 「安軸의 <관동별곡> 창작 시기와 그 배경」. 한국시가학회, 『한국시가연구』19(05. 11), 29~30면 각주 참고.

장에 선다는 계급의식이 경기체가의 구조로 구현된다는 견해<sup>16)</sup>는 당해 속제에 매우 시사적이다. 특히 근재는 민족주의적 의식이 강해 ‘고려의 특수성이 중국 문화 속에 매몰되어버리는 것을 경계하였다’라고 하여 <죽계별곡>에 대한 해석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놓았다. 이 텍스트를 신흥사대부들의 득의에 찬 기백, 그들이 ‘절경을 찾아 질탕’<sup>17)</sup>하게 노는 풍류 장면들을 과시·찬양했다는 식의 감상은 이제 빛을 잃게 된다. 대신 산수나 경물은 오히려 찬미의 대상이며 理의 의탁처로 해석된다. 士夫들은 그 이를 체인(득)해서 정치에 반영할 사명을 띠었으며 국가를 중흥시킬 길이 바로 거기서 열린다고 믿는다. <관동·죽계별곡>은 이런 그의 정치 철학의 구조를 구상화했다는 것이다. 신선하면서도 논리적인 주장이지만 막상 텍스트와 대조하면 마찰이 생긴다.<sup>18)</sup> 작품 현실에서 이론화로 진행하지 않고 그 역방향을 추구하다보니 발생한 문제가 아닌가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부들의 민족의식이 드리웠다는 논급에서 우리는 반가운 동조자와 해후하게 된다.

필자는 근년에 <관동별곡>의 창작 시기와 창작 배경을 ‘<경상도 팔영> 같은 한시 가요로는 강원도 절경과 거기에 깃든 역사의 자취를 여실하게 표현할 수 없음을 실감한 근재가 1345년 강원도 준무사로 나선 淡庵 白文寶(1303~74)를 위해 창작했다.’<sup>19)</sup>라는 비견을 제시한 바 있다. 같은 논리를 <죽계별곡>에서도 적용할 수 있

16) 고정희, 앞 논문.

17) 조동일, 앞 책, 185~6면.

18) 이를테면 <관동별곡>을 경물의 아름다움(1·3행)→治者의 아름다운 위엄(4행)→아름다운 풍속이란 구조가 동심원적으로 반복된다 하고선 <죽계별곡>의 구조가 아름다운 풍속(제1·2장)→治者의 아름다운 위엄(제3장)→경물의 아름다움(제4·5장)이란 순서로 배열되었으며 매 장도 이런 구조가 동심원적으로 반복된다고 했다. 고정희, 앞 논문 70~8면. 동일 작가의 동일 양식에서 이런 구조적 전도가 ‘개인사적 배경과 준무사로서의 의무감’(71면)으로 설명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19) 줄고, 「安軸의 <관동별곡> 창작 시기와 그 배경」, 앞 글, 40면.

을 것인즉 간략히 징험해 보기로 하자.

1344년(충목왕 즉위년) 쯤에 담암이 경상도 안찰에 나섰다.<sup>20)</sup> 이럴 경우 영접하는 고을의 유학 선생이 문도와 더불어 환대의 표시로 계곡의 시를 짓던 관례를 좇아 근재가 <白文寶按部上謠八首并序引>을 지었다. 후미에 시제의 ‘八首’ 외에 협주와 7절 1수를 추가했는데 매우 인상적이다.

여러 문생들이 경상도를 안찰하는 분에게 헌정할 가요 한 축을 내게 보였다. 그것들의 참신한 의미를 아껴 3번이나 즐겨 읽었다. 그러나 우리 흥주에 소재한 영구산 숙수루는 그 풍치가 팔경에 뒤지지 않는데 누락시켜 노래하지 않았으므로 나는 심히 괴이하게 여겼다. 사위 정생(鄭良生...필자 주)더러 절구 1수를 짓게 해 책 말미에 붙여 내 고향 산수의 수치를 씻는다.

|                          |                        |
|--------------------------|------------------------|
| 신령스런 거북이 목 움츠린 형세라 영구산인가 | 靈龜形勢縮山頭                |
| 그 아래 계곡 가엔 백 척 누정 우뚝하다   | 下有臨溪百尺樓                |
| 필시 청량한 산자락에 기대 아침해 삼키며   | 須倚涼軒曠朝日                |
| 진기를 양성한 지 이미 천 년이겠지.     | 釀成真氣已千秋 <sup>21)</sup> |

영구산 숙수루를 제재로 지은 7절 한 수를 말미에 첨가한 사연을 밝힌 점이 소중하다. 경상도 팔경은 공론화된 사실이므로 경상도를 안검하는 인물에게 우선적으로 소개함은 예의요 상식이다.

20) 담암이 경상도를 순력한 사실은 명백하지만 그 시기가 구체적으로 언제 인지는 모호하다. 근재가 그를 위해 지은 <引>에 ‘밝은 윤음 받들어 연꽃 장막 펼치니 새로운 군주의 은혜 특별하구나(奉明綸開蓮幕 別承新主之恩)’라는 구절이 있다. 줄친 부분의 ‘신주’는 충목왕을 지칭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그가 즉위한 직후가 아닐까 한다. 『근재집』권 2, 471면. 이후 『한국문집총간』2에서 인용할 경우 이 방식을 취한다.

21) 諸生 示余以獻按部歌謠一軸 愛其新意 玩讀至三 然吾興州所有靈龜山宿水樓 其風致不居八景之後 而漏而不賦 余甚怪焉 使家贅鄭生 賦一絕 書于卷末 以雪吾鄉山水之恥. 『근재집』권 2, 472면.



도식적인 사유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그러나 근재로서는 불만이다. 그것은 자기 고향에 대한 배신이요 모독으로 다가온다. 공론을 존중하면서도 고향의 자부심을 펼칠 수 있는 묘안으로 사위를 팔았다. 인용된 시문은 바로 그의 열렬한 애향심의 발로다.

담암은 1345년(충목왕 1)에 강원도 준무사로 임명되었다. 경상도 순력길에 나선 그에게 <慶尙道八詠>이란 한시를 지어 헌정했던 근재는 그를 위해 경기체가 <관동별곡>을 지었다. <경상도팔영>이란 한문가요가 한국인의 정서 전달과 수용에 한계가 있음을 감지하고 경기체가에 <경상도팔영>의 구실을 위임한 셈이다. 강원도 여러 고을의 경물과 고적을 발행할 담암에게 효율적으로 소개하는데 경기체가의 양식과 가락이 적절함을 터득한 결과다.<sup>22)</sup>

<경상도팔영>이 경기체가 <관동별곡>으로 환생한 궤적은 <죽계별곡>에도 상응하리라 본다. 앞서 본 숙수루 제재 7절은 <경상도팔영>과 동시에 동일한 시형으로 제작되었다. 때문에 저것 역시 음영 아닌 가창으로 향유되었을 터이고 그랬을 적에 감득되는 미진함과 불만스러움 역시 동질적이라 보아야겠다. <죽계별곡>은 바로 그것들을 개선한 노작으로 이해함직하다. 그 근거를 구해본다. 첫째, <죽계별곡>은 순흥이란 한 고을의 예찬이다. 순흥이 보유한 여러 자랑거리를 5연에 분산시켜 노래하고 그것을 ‘죽계’로 상징했다. 여기에 비해 <관동별곡>은 순흥과 동급의 여덟 고을 이상을 역시 같은 시형과 어조로 찬미했다. 둘째, 근재는 강원도 여러 고을을 순력할 담암에게 순방할 지역의 이색적인 경물과 고적, 그리고 맛볼 수 있는 별미 등을 사전에 알리고자 <관동별곡>을 지었다.<sup>23)</sup> 이런 점에서 이 텍스트는 기행시로 포장된 목적시로 분류할 수 있다. <죽계별곡> 역시 <관동별곡>의 담암에 비견되는 인

22) 자세한 과정은 줄고, 「안축의 <관동별곡> 창작시기와 그 배경」, 앞 글, 36~7면 참조.

23) 줄고, 「安軸의 <關東別曲> 反芻」, 『韓民族語文學』47집(2005, 12), 200~3면.

물을 예상했다. ‘아, 우렁찬 벽제에 새 수령 맞는 광경(爲 呵喝 迎新景. 제3연 끝 행)’과 ‘버드나무 우거진 계곡 그대 위해 열리지요(爲君開 柳陰谷. 제4연 2행)’에서 ‘새 수령’과 ‘그대’가 해당되는 인물이다. ‘그대’를 ‘새로 안검에 임하는 수령’과 동일인으로 간주할 수도 있겠으나 순정성을 내방하는 불특정 유상객으로 지정해도 괜찮을 것이다. 한다면 순정성을 처음 찾는 인물에게 이곳의 여러 경물과 고적, 나아가 향유할 수 있는 풍치들을 안내하고 홍보하고자 <죽계별곡>을 창작했다는 것이다.<sup>24)</sup> <죽계별곡> 역시 고장의 예찬이란 목적성이 강렬한 작품으로 읽혀진다.

홍주를 표상하는 숙수루를 제재로 7절 1수를 정양생더러 짓게 해서 당악류에 넣어 보았지만 부조화와 미진감이 고향예찬이란 의도를 살려내지 못한 점 근재는 안타까웠다. 마침 충목왕의 태를 1348년에 봉안하는 일을 계기<sup>25)</sup>로 고향이 순흥부로 승격되는 경사를 입자 누구든 찾아 줄 이들에게 고향의 진면목을 속속들이 알려서 깊은 인상과 호감을 주려 <죽계별곡>을 지었다고 본다. 이 텍스트를 새롭게 읽을 수 있는 인식 틀이 여기서 마련된다. 이렇듯 <죽계별곡>을 감상하는 관점과 방향의 전환은 텍스트의 분석을 통해 그 타당성이 논증되어야 한다. 신홍사대부들의 계급의식의 찬양과시나 퇴폐 혹은 향락적 정취 표백으로 논평했던 것과는

24) 권호문이 <독락팔곡>을 악부에 비의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민족 고유의 역사나 풍물을 제재로 취한다는 면에서 악부와 경기체가란 두 갈래가 매우 근접하다고 인식한 것이다. 근재가 <죽계별곡>을 고향 순흥에 헌정하는 노래로 지었다는 본고의 관점을 일정정도 뒷받침한다고 하겠다. <獨樂八曲并序>. 巖主謀拙萬事 才短六藝 寓形世間 宅心物外 黃墨之暇 會有嘉辰之興 歌詠之事 發以爲歌 調以爲曲 揮毫題次 擬爲樂府 雖烏烏無節 聽以察之 則詞中有意 意中有指 可使聞者感發而興嘆也. 『松巖集』續集卷 6, 『문집총간』41, 288면.

25) 順興都護府 本高句麗及伐山郡 新羅改爲岾山郡 高麗改爲興州 顯宗戊午 屬吉州任內 後移屬順安縣 明宗一年 始置監務 忠烈王甲戌安胎 改爲興寧縣置令 忠肅王癸丑又安胎 陞爲知興州事 忠穆王戊子又安胎 陞爲順興府 本朝太宗癸巳 例改爲都護府 別號順政(淳化所定). 『세종실록』권 150.

다른 층위에서 작품을 읽을 필요가 생겼다. 민생과 국가가 불치의 역경에 처했다 판단하고<sup>26)</sup> 그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고자 고향의 승경과 명물, 고유의 전통과 역사를 기림으로써 좁게는 고향을 찾아 줄 인물들에게 호기심과 탐승 욕구를 고조시키고 넓게는 고향인과 거래의 구심력으로 작동해 줄 촉매로 <죽계별곡>을 창작했다는 것이 이 연구의 입장이다. 이런 창작의 취지를 미적으로 구현하고자 작가가 어떤 제재를 무슨 기법으로 육화시켰던가를 점검해야 할 일이다. 이 작업이 의도한 대로 수행된다면 작가와 텍스트에 대한 문학사적 위상도 재고될 것이다.

## II. 현대적 정비와 평석

|                            |                                |
|----------------------------|--------------------------------|
| 竹嶺南 永嘉北 小白山前               | 죽령 남, 안동 북, 소백산 앞              |
| 千載興亡 一樣風流 順政城裏             | 천년간 흥망해도 한결같은 풍류의 순정성 안        |
| 他代無隱 翠華峯 王子藏胎              | 다른 곳에 없는 취하봉엔 왕자 태가 묻혔지요.      |
| 爲 釀作中興景 幾何如                | 아! 중흥하는 광경, 그것이 어떠하겠습니까?       |
| 淸風杜閣 兩國頭御                  | 淸白한 기풍 관아를 올리더니 양국에서 어사화 었네    |
| 爲 山水淸高景 幾何如 <sup>27)</sup> | 아! 산이 높고 물이 맑은 경치 그것이 어떠하겠습니까? |

고을의 번성과 인물의 탄생이 산수의 정기와 긴밀한 관계를 맺

26) 근재의 <天歷三年...夜半雨作有懷>의 일부에서 이런 심리를 명징하게 읽을 수 있다. 民生塗炭知難求 國病膏肓念可驚 耿耿枕前眠未穩 臥聞山雨注深更. 『근재집』 권 1, 451면.

27) 원문은 『근재집』 권 2, 474~5면에서 인용했다. 이후도 여기에 준한다.

는다는 작가의 철학을 형상화한 연이라 하겠다. 근재는 한 고을이 재능과 덕성이 비범한 인물을 배출함에는 영령하고도 청숙한 산수의 정기와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sup>28)</sup> 고을이 점진적으로 격상되어 府에 이른 사실과 두 나라에 급제한 인물의 출현이 그의 신념의 구현으로 인식되고 그것이 제1연의 중심 화제가 되었다.

‘죽령’<sup>29)</sup>과 ‘영가’<sup>30)</sup>라는 호칭에는 보국 내지 구국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유래전설이 있다. 충렬왕 이래로 안동의 공식 지명은 ‘북주목’인데 구명을 습용한 까닭이 자명해진다. 소인목객들은 위용과 미관으로 소백산을 읊었다.<sup>31)</sup> 순흥은 명미한 자연과 충의의 고장이 에워싼 고을임을 양각했다. 둘째 행의 시간 이미지는 첫 행의 공간 이미지와 함께 구상화를 도우면서 세속과 자연의 대비를 4음절이란 변이로 강조했다. ‘풍류’는 향락적인 놀이보다는 자연의 관조를 매개로 맛볼 수 있는 운치거나 자연경관을 더욱 추상화한 어휘로 보인다.<sup>32)</sup> 순정성은 정치적 부침을 모르며 자연의 아름다운

28) <襄陽新學記>. 關之東 山水奇秀 而襄陽居其中 其英靈之精 清淑之氣 必無虛畜 而於百餘年間 未聞有瓊奇才德之士 出是邑而瑞人倫者 此非山水之氣無驗 而邑人之性不善 蓋是邑 自古隣於藩境 變亂屢興 學教之道不修也. 『근재집』 권 1, 468면.

29) <竹嶺>. 在府西四十里 昌樂之西 郎湖西 往來之大路 新羅阿達王戊戌 竹竹始開路 仍殉節于此 嶺之名以此 嶺西有竹竹祠. 『順興誌』.

30) <安東大都護府建置沿革>. 高麗太祖 與後百濟王甄萱 戰於郡地 敗之 郡人金宣平金幸張吉佐太祖有功 拜宣平爲大匡 幸吉各爲大相 因陞郡爲府 而改今名 後改永嘉郡. 『신증승람』 권 24, 一二四면. 이하 민족추진위원회에서 번역 출판한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인용할 경우에는 이 방식에 따른다.

31) <豊基山川·小白山>. 在順興縣 距郡三十二里 徐居正詩 小白山連太白山 逶迤百里挿雲間 分明畫盡東南界 地設 天成鬼破陜. 『신증승람』 권 25, 一四八면. <小白山>. 在府西北二十里許 自太白來 盤據三道之間 爲嶺南名鎮. 『順興誌』.

32) 李滉이 <陶山十二曲>의 言學 其一에서 ‘이 등에 往來風流를 닮아 므슴홀고’ 했을 적의 ‘풍류’에, 그리고 신은경이 고려 시대의 풍류 개념을 설정

고태를 비장한 곳이라 귀인들의 태를 안장하기에 좋은 지세라는 의미도 복합되었다.<sup>33)</sup> 세 왕의 태반이 갈무리된 골짜기나 산봉우리<sup>34)</sup>를 은유와 제유로 취화봉<sup>35)</sup>이라 명명하고선 유일한 곳이라 격찬했다. 전국의 소문난 명당들을 물리치고 태 봉안지로 고향이 선정된 데 대한 강한 자부심, 그리고 고려가 천자국처럼 자주적으로 행세할 수 있도록 왕들이 선정을 베풀어 달라는 염원이 배어있지 않았나 한다. 제3행의 왕자 장태와 제4행의 양작중흥은 인과성에 기반했다. 왕의 태가 묻힐 적마다 고을의 행정 급수가 승격한 사

하는 가운데 ‘(4) 사물(특히 妓女)의 고운 자태를 형용하는 경우’가 여기에 근접하리라 본다. 辛恩卿, 『風流』-동아시아 美學의 근원-(보고사, 1999), 50~1면.

- 33) 順政城은 순흥부의 옛 성을 지칭한다. 풍기군에서 북으로 20리에, 둘레 1019척, 높이 6척의 돌로 쌓은 성이었다고 한다(<豐基郡古跡·順興廢府>. 城石築 周一千十九尺 高六尺 居郡北二十里). <죽계별곡> 창작 당시만 해도 순흥부는 아마 이 순정성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역대 왕의 태를 묻었다는 일 때문에 중앙이 표나게 지원했고 그에 비례하여 인구 및 물산이 유입됨으로써 중흥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 때의 면모를 복원해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텍스트에 보이는 명승과 누정 나아가 고적을 더듬기도 힘들다. 그 결정적 원인은 아마 세조 때 순흥부사였던 이보흠이 단종 편에서 역모를 도모하다 발각되자 府가 혁파된 데 있지 않을까 한다. 이 사건으로 순흥부는 해체되어 풍기군, 영천군 봉화읍에 분속되는 비극을 맞았다. 世祖朝 以府使李甫欽 爲囚人所脅謀亂 革屬本郡 割馬兒嶺水東之地屬永川 文殊山水東之地屬奉化邑. <豐基郡古跡·順興廢府>, 『신증승람』권 25, 一四八면.
- 34) <豐基郡山川>. 草庵洞 在小白山 距郡北四十五里 藏高麗忠烈王胎. 慶元峯 在小白山 距郡北二十二里 藏高麗忠肅王胎. 郁錦洞 在小白山 距郡北十三里 藏高麗忠穆王胎. 『신증승람』권 25, 一四八면.
- 35) ‘취화’란 ‘물총새의 깃으로 장식한 천자의 기’가 원의다, 인접성의 원리로 더 확장시켜 천자가 타는 수레 혹은 천자 자신을 지칭하기도 한다. 天子儀仗中 以翠羽爲飾의旗幟 或車蓋. 『文選·司馬相如<上林賦>』: 建翠華之旗 樹靈囿之鼓. 李善注: 翠華 以翠羽爲葆也. 南朝梁沈約 <九日侍宴樂游苑>詩, 虹旌迢遞 翠華葳蕤 亦爲 御車或帝王的代稱. 『漢語大詞典』9, (漢語大詞典出版社, 1996), 660면. <배천곡>에서도 思樂泮 宮采芹 我后戾止/ 住翠華御帳殿 冉冉需需/ (제3연)처럼 시어로 쓰인 점으로 미뤄 친근한 어휘의 하나였으리라 짐작된다.

실의 서술로 초점화의 기교를 부렸다. 순흥 고을의 발전 동력이 지세였음을 전단은 강조하고 있다.

후단은 고장 산수의 정기를 입어 양국에서 입격한 형제의 영광을 노래한 듯하다. 근재는 1324년(충숙왕 11)에, 그의 아우 輔(1302~57)는 1345년(충목왕 1)에 각각 제과에 올랐다.<sup>36)</sup> 공정한 마음, 근검한 태도로 평생을 산 근재<sup>37)</sup>의 교회를 입은 보 역시 염결<sup>38)</sup>을 처신의 제일의로 세웠을 것은 짐작하고도 남는다. 둘이 집무했던 관서를 ‘두각’이라 이른 점에 묘미가 있다. 근재의 신조어라 판단되는 이 어휘는 甘棠(팔배나무)<sup>39)</sup>을 목재로 쓴 건물로 풀이된다. 周의 召公이 남방을 순행하며 문왕의 정치를 펼쳤는데 이따금 이 나무를 숙사로 사용했다는 시경시 <召南·甘棠>의 주석<sup>40)</sup>을 원용한 듯하다. 근재에게는 고려 조정의 관아—두각—소공이 집무했던 감당 그늘’이라는 등치가 성립되었던 듯하다. 이런 등치의 성립 전제는 원의 황제=고려 왕, 소공=근재 혹은 보라는 대입에서 찾아질 듯하다. 소공이 이입한 뒤에도 고을민들이 그의 선치를 칭송해

36) 조동일은 ‘...자기가 들어서 중흥을 했다고 자랑했다. 청백리의 행실로 원나라와 고려 두 나라에서 벼슬했기에 산수의 격조를 더 높였다고 했다’라 하여 근재 자신의 과시적 진술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고장 산수의 정기를 받아 인물이 배출된다는 근재의 사유와 <죽계별곡> 창작 전에 보도 이미 등재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저런 견해는 속단이 아니었나 한다. 조동일, 『한국문학통사』2, 앞 책, 185면. 안보의 제과 합격 기사는 이렇다. 忠穆王初年十一月 遣尹安之安輔郭珣應舉 明年輔中制科. 『고려사』권 74, 지 권 제 28, <科目> 2.

37) <安輔>. 處心公正 持家勤儉...碩早沒 輔教二弟輔輯 俱登第 輔輯事之亦如父. 『고려사』권 109, 열전 권 제22.

38) <安輔>. 性剛直廉潔 喜讀史漢 爲文章去華取實 達而已矣 臨事 務遵大體 略不依違顧望 且不事生產 及沒 家無擔石之儲 無子. 『고려사』권 109, 열전 권 제22.

39) 杜: 杜梨 也叫棠梨 一種野生梨. 『漢語大詞典』. 甘棠 杜梨也 白者爲棠 赤者爲杜. 成大 大東文化研究院 영인, 『詩經』(乙文社, 1984), 30면.

40) 召公循行南國 以布文王之政 或舍甘棠之下. 성대 대동문화연구원 영인, 『시경』, 앞 책, 같은 곳.

감당나무를 애중했듯 축과 보도 역시 그와 대등한 치적을 내었다는 자신감으로<sup>41)</sup> ‘두각’이란 어휘를 구사하지 않았을까 한다. 제1연은 고을의 중흥과 비상한 인물의 배출 이면에는 산천의 음덕이 크게 작용했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                |                                |
|----------------|--------------------------------|
| 宿水樓 福田臺 僧林亭子   | 숙수사, 복전사, 승림사의 누대와 정자          |
| 草庵洞 郁錦溪 聚遠樓上   | 초암 골짜기 우금 시내 끼고 선 부석사의 취원루 위에서 |
| 半醉半醒 紅白花開 山雨裏良 | 반성반취한 채 보니 붉고 흰 꽃 피었구나, 산 비속에서 |
| 爲 遊興景 幾何如      | 아! 유희하는 광경, 그것이 어떠하겠습니까?       |

제2연은 순흥부에 산재하는 누정 중 회자되는 것들을 탐방하며 맛볼 수 있는 흥취를 노래했다. 다른 고을에 비해 누정이, 그것도 사원에 소속된 것들이 다수라는 면을 부각시켰다. 초암동에는 충렬왕의 태가, 우금동에는 충목왕의 태가 각기 안치된 곳이라 그 자체로서도 순례의 가치가 있으며 완상에 값하는 경물도 없지 않겠으나 행간에 감추고 취원루를 수식하는 통사구조를 이름으로써 관심의 종착지가 누정임을 시사했다. 나열된 누정에서 조망해 본景象과 거기서 감발되는 정취를 제3·4행에 배분했다. 순흥부의 건본적인 누정 편답과 그 감흥의 언표가 제 2연의 주제-내용이다.

‘樓臺亭’은 양식이나 규모 면에서 상이하<sup>42)</sup> 셋을 언급함은 중

41) 소공의 행적은 중세 문사들에게 익숙했던 것 같다. 이규보와 정도전의 다 음과 같은 진술이 이를 방증해 준다. 이규보의 <桂陽草亭記>. 古人有思其人 不剪甘棠者 敢毀亭耶. 『동문선』 권 67, 민족문화추진회, 『동문선』 VI, 597면. 정도전의 <贈任鎮撫詩序>. 宇宙以來 有虞夏商周之世道 斯有變臯稷契伊傅周召之人材 道之所以行也. 『三峯集』 권 3, 『문집총간』 5. 337~8면.

42) 간명한 구분은 이규보의 설명으로도 족할 것이다. <四輪亭記>. 古者巢居

류의 다양함, 화자의 남다른 감식안, 표현상의 변화 등 여러 구실을 담보한다. 다만 취원루를 제2행에서 독립시킨 사유는 별도다. 누정은 앉은 지세가 幽深한 곳이나 高曠한 곳이나에 따라 清爽幽寂과 閒淡曠敞이란 각기 다른 미감을 조성한다.<sup>43)</sup> 근재는 자기 고향에 전자류가 많다고 토로한 적이 있다.<sup>44)</sup> 그의 이런 설명이 없더라도 순흥의 유상을 계획하는 이들 뇌리에는 순흥이 산협이라는 관념에서 보편적으로 전자류의 심상이 그려질 것이다. 그러나 취원루는 명의 자체로나 그것을 제재로 쓴 시문을 보더라도<sup>45)</sup> 저런 선입견을 여지없이 부수어 버린다. 사방이 일망무제여서 천태만상을 요연히 조감할 수 있는 위치로 파악된다. 순흥의 누정들이 제공하는 조망이 대극적이어서 유상객들에게 경이로움을 매양 제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취원루를 제 2행에 독립시켰으리라 여겨진다.

순흥의 명소로 <죽계별곡>에서 누정을 나열한 면으로나 누정에 대한 진술이 『근재집』의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점에서(개략적으로 시는 17 / 126, 記는 3 / 7) 그것에 대한 근재의 각별한 관심과 애착을 엿볼 수 있다. 한다면 누정의 문화적 함의, 당대적 기능 등에 대한 그의 생각과 입장을 살핌이 불가피하다. 간결히 유목화해서 살피고자 한다.

1) 누정은 ‘고답적인 정취와 맑은 식견(高情澈識)’을 소유한 인물과 奇觀異境을 일순에 조망할 수 있는 지세(天作地藏, 秘畜天慳)

不可以處 故始立棟宇 以庇風雨 至於後世 轉相增制 柴板築 謂之臺 複欄檻 謂之榭 構屋於屋 謂之樓 作豁然虛敞者 謂之亭 皆臨機商酌 取適而已. 『東文選』 권 66, 민족문화추진회, 『국역동문선』 VI(1984), 593면.

43) <翠雲亭記>. 大抵 樓亭之作 不在高曠 則在幽深. 『근재집』 권 1, 469면.

44) <順興鳳樓樓重營記>. 吾州之有樓臺之名于代者多矣 皆逼山而深絕處 其所以名者 皆山高水清也. 『근재집』 권 2, 476면.

45) 『擇里志』後有聚遠樓 宏闊縹緲 若出天地中央 氣勢精神 似雄壓慶尙一道. <浮石寺>. 聚遠樓頭綰幕寬/我來秋日凭欄干/居僧指點分諸國/笑道人間行路難. 『武陵雜稿』 권3, 『한국문집총간』 26, 502면.



란 두 조건을 만족시켜야 영조된다. 순흥에는 예에 상응하는 인물과 지형이 많았음을 증언한다.

2) 자연관의 변화와 누정의 구실이 호응할 것은 당연한 이치다.<sup>46)</sup> 근재는 물상의 외적 미관을 즐김에는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가 동일하나 후자는 여기서 나아가 묘리까지 얻어 군자가 된다<sup>47)</sup>고 했다. 그의 시대에는 자연의 심미적 흥감에 만족하는 부류와 이 차원을 넘어 관물공리 곧 理의 체인에 환열하는 부류가 있었다는 것이다. 우주를 규율하는 묘리를 체인할 수 있는 장소로 누정의 역할이 강조되면 성리학적 교양이 풍부한 인물일수록 그곳을 애호할 것이요 성리학적 기풍의 강도에 누정의 수는 비례할 것이다. 결국 순흥에 누정이 많다는 언술 이면에는 여기에 성리학적 열의가 편만했음을 일러줌에 다름 아니다.

3) 누정은 稼穡을 독려하고 농상을 권장하거나<sup>48)</sup> 공무에 시달리는 관원들의 심신을 쇠락시켜 주는 실용적 기능도 지닌다.<sup>49)</sup> 누정

46) 누정은 시대에 따라 그 역할 내지 기능이 달랐다. 이규보가 <赫上人凌波亭記>에서 亭榭를 放情, 肆體, 遊賞, 宴喜한다는 종래의 구실 외에 淸淨無塵의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점에서 그 일단을 엿볼 수 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다음 두 연구로 미룬다. 金銀美, 「朝鮮初期 樓亭記의 研究」, 이화여대 학위논문(1991), 103~37면. 김성룡, 「고려 중기 樓亭文學의 형성과 山水美 발견에 대한 연구」, 『국어교육연구』, 국어교육연구회(02), 323~30면.

47) <鏡浦新亭記>. 天下之物 凡有形者 皆有理 大而山水 小而至於拳石寸木 莫不皆然 人之遊者 覽是物而寓興 因以爲樂焉 此樓臺亭榭 所由作也... 夫形之奇者 在乎顯而目所玩 理之妙者 隱乎微而心所得 目玩奇形者 愚智皆同 而見其偏 心得妙理者 君子爲然 而樂其全. 『근재집』권 1, 467면.

48) 근재의 아래 시문들을 통해 이 점을 알 수 있다. <三陟西樓八咏·依山村舍>. 傍山煙火占孤村/竹下紅桃臥守門/力穡田夫皆惜日/戴星服役返東昏. 『근재집』권 1, 452면. <順興鳳栖樓重營記>. 歲二月 農功始作 往南畝者 夾道于樓之下 往西郊者 羅列乎樓之外 決渠爲雨 荷鋤成雲 斯樓非獨山水之美有觀稼課農之樂也(...)公或當農月 早放衙 登斯樓 日課農功 責就作之早晚 詰服役之勤慢 以是賞罰 民皆自勸 晚者早 慢者勤 爭爲之先. 『근재집』권 2, 477면.

49) 정도전의 <登龍珍寺克復樓>에서 적절한 예를 만날 수 있다. 曾讀山人記/

에 오르면 농부들의 권태에 따른 농작물의 작황이 한눈에 잡힌다. 번무에 시달린 공직자는 누정에서 천리유행을 감촉함으로써 사고의 독립성과 유연성을 복원할 수 있다.

화자는 앞의 누정들을 전전하면서 유의한 경물과 감흥을 제3~4행에 집약했다. 제3행은 杜牧(803~52)의 <念昔遊> 중 2구<sup>50)</sup>를 차용했다. 그의 시풍은 ‘화려하고 염정적인 색채’<sup>51)</sup>가 특징이다. 그가 순흥의 누정들을 편답하더라도 유사한 시구를 생성하리라는, 순흥의 산수가 결코 중국에 뒤지지 않는다는 근재의 독실한 애향심의 발로로 해석된다. 이는 또 魚躍鳶飛에 버금가는 천리유행의 현상 체인으로 읽을 수 있다. 붉은 도화와 하얀 배꽃<sup>52)</sup>은 다채로운 봄꽃들을 대유한다. 내리는 비는 저들이 피어남에 매우 적절하다. 따라서 순조롭게 운행되는 천리의 구상적인 표현, 즉 시기에 맞춰 비가 오고 그것을 기다렸다는 뜻이 곧장 꽃이 피는 현상을 우의한 것이요 우주의 조화로운 이법을 표백한 대목으로 읽을 수 있다.<sup>53)</sup> 두목의 <염석유>를 낳게 한 승경이 순흥에도 있으며 화자는 거기서 魚躍鳶飛에 버금가는 현상을 목격했다는 의미로 제3행은 해석된다. 제4행은 제1~3행까지의 유상을 집약해 관념적 어휘로 제시했다. 주의할 점은 감각적, 환락적 쾌감의 충족에만 자족할 수 없다는 점이다. ‘반쯤 취하고 반쯤 깬’이란 어구에서 취흥을 유추하기란 용이하다. 그러나 주흥 혹은 酒醉에만 제한적으로 이 어휘가 구사되었다 볼 수는 없다. 때문에 이것은 理醉를 중심으로

思登克復樓/試尋苔徑細/來入洞門幽/古木千章秀/深溪八月秋/灑然滌煩慮/聊可此淹留. 『삼봉집』 권2 『한국문집총간』 5, 313면.

50) <念昔遊>. 半醒半醉遊三日 紅白花開山雨中.

51) 김학주정범진, 『중국문학사』(범학, 1979), 202~3면.

52) ‘紅白花開’는 한자 문화권에서는 봄을 표상하는 붉은 복숭아꽃과 하얀 배꽃의 상투어로 쓰였다. 韓愈의 <寒食出遊三日> 중 ‘邇來又見桃與梨 交開紅白如爭競’ 구절이 이를 입증한다.

53)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우중이거나 음습한 날씨에는 누정의 登臨을 기피 내지 자제했으리라는 일반적인 사고도 이런 해석을 보강해준다.

詩醉, 酒醉까지 포괄하는 의미로 읽어야 할 일이다.<sup>54)</sup>

후단은 이본에 따라 제각기 다르다. 일차로 후소절 전체가 없는 것과 있는 것으로 대별되며 이차로 있는 것도 글자가 교체된 양상이다.<sup>55)</sup> 문제는 ① 근재가 제2연을 제작할 적부터 후소절이 없었느냐 아니면 그때는 완형이었는데 판각 도중 누락되었느냐를 판명하는 일과 ② 목도하는 후소절이 과연 전대절과 정합하느냐 여부를 검토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①은 결론부터 말하면 근재가 제작할 당시에는 존재했을 개연성이 높다. <관동별곡>과 함께 <죽계별곡>이 수록된 『근재집』은 3종인데<sup>56)</sup> 그 중 적통은 1910년(庚戌) 5월에 판각된 咸州본으로 본다. 이것은 근재의 사위 정양생이 청주에서 인출한 『관동와주』(1328년, 『근재집』권 1)→안승선의 『보유』(1345년, 『근재집』권2)→안경운의 『증보』(1640년, 『근재집』권 3)→안유상의 『부록』(1910년, 『근재집』권 4) 순서로 누적·편술된 체재다.<sup>57)</sup> 『근재집』의 이런 전승 과정에서 <죽계별곡>은 <보유> 편에 비로소 등장한 이래 어떤 인공의 개입 없이 그대로 보전된 셈

54) 임기중은 ‘초암동, 옥금계, 취원루 위에서/ 반쯤은 취하고 반쯤은 깨어, 불고 하얀 꽃 피는, 비 내리는 산 속을/ 아, 흥이 나서 노니는 모습 그 어떠합니까!’로 역해했다. 줄 친 부분으로 드러나듯 지나치게 자구에 구속되었으며 이는 독자들의 외연적 감상만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낳게 한다. 임기중 편저, 『우리의 옛 노래』, 앞 책, 158면. 이와 관련하여 ‘반성 반취’를 의식이 가물가물하는 酒醉라는 축자적 의미로 읽어 ‘자기함몰 상태로 빠져든다’로 풀이함은 텍스트의 문학성을 훼손하는 처사가 아닐까 한다. 신영명, 『景幾體歌의 갈래적 성격과 安軸의 자연관』, 우리어문연구 9집, 276면. 265~84면.

55) 김창규가 이미 소상하게 대조한 작업이 있어 구체적인 모습은 그리로 미룬다. 김창규, 『<竹溪別曲> 評釋攷』, 앞 논문, 33~4면.

56) 김창규, 앞 논문, 30면, 각주 15), 16), 17) 참조.

57) <跋>. 先生之著述 不爲不多失於紅賊之燹 有瓦注一篇 董傳於其壻蓬原君鄭良生 上黨之刊 其補遺增補二篇 乃玄孫文肅崇善及十四世孫承旨慶運 所蒐得於諸家記誌暨人口播傳者也 是板 曾刊於耽羅 移閣於羅州 歷世既久 燼沒無徵 識者恨之 己酉秋 子孫之在宜威者 咸萃於聚友精舍 行別廟祀事 燕飲訖 有商…不肖後孫 有商 盥手謹識. 『근재집』권 4, 493~4면.

이다. 안송선은 직업윤리와 가문의식을 발동해서 두 텍스트를 수습했는데<sup>58)</sup> 당시 경기체가 양식이 성행했다는 사실과 아울러 <관동별곡> 및 <죽계별곡>의 총 14연에 유사한 파형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제2연이 불구라는 사실은 이외다. 그런데도 그가 손질하지 않았다는 점은 첫째 전승되는 형태를 존중한다, 둘째 원상을 복원코자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성과를 얻지 못했다, 셋째 제4행 이하는 葉이므로 腔에 비해 중요성이 떨어진다, 등의 사유와 행위를 함유한다. 안송선이 인간할 시기에 이미 결락되었다고 보아야 할 이유다. ②는 후단을 접속시킨 텍스트가 오히려 개악되었다는 비난을 받을 것 같다. ‘고양의 화려한 복색을 갖춘 삼천여 명의 술꾼들/아! 손잡고 노는 광경 그것이 어떠합니까?’<sup>59)</sup>로 번역되는데 앞 부분과 접맥시키면 간과할 수 없는 균열이 생긴다. 襄陽의 이명인 고양이 순흥과는 관련성이 희박하고 누정은, 특히 산중에 소재하는 그곳은 저렇게 많은 유관자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며, 조용히 경물의 관조를 통해 그들을 관류하는 理의 체인과 그 감흥에 열락할지언정 주흥에 취해 흥청거리는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는 공간으로 근재 시대에는 기능하지 않았으리라는 짐작에서 그렇다.<sup>60)</sup> 때문에 근재는 제2연을 완형으로 발표했으나 언젠가 결락되었으며 결코 지금 같은 표현은 아니었으리라 단언해도 무난할 듯하다.

彩鳳飛 玉龍盤 碧山松麓

찬연한 봉새 날며 옥룡이 서린 듯한  
산세, 푸른 빛 송림 자락

58) 줄고, 「安軸의 <관동별곡> 창작 시기와 그 배경」, 앞 논문, 10~11면.

59) 高陽酒徒 珠履三千/爲 攜手相從景 幾何如

60) 후단의 선부른 부착이 연 전체를 술꾼들의 취흥으로 풀이하여 품격을 손상시키는 예를 ‘전대절에 보이는 취흥의 모습이 예로부터 중국에 전하여 오는 고양지의 술꾼들이나 춘신군의 문객들처럼 흥에 겨워 손을 잡고 서로 쫓아 노니는 광경과 비슷함에 착안하여, 이를 연결시켜 감흥을 표현한 것이다’라고 주석한 면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한창훈, 「謹齋 安軸(1282~1348)論」『우리말어문연구』14(1995), 205면.

|                |                                        |
|----------------|----------------------------------------|
| 低筆峯 硯墨池 齊隱鄉校   | 저필봉과 연묵지 구비한 향교에서                      |
| 心趣六經 志窮千古 夫子門徒 | 마음은 육경에, 의지는 천고 궁구에<br>둔 공자 제자들        |
| 爲 春誦夏絃景 幾何如    | 아! 봄철의 암송, 여름의 농현하는 광<br>경, 그것이 어떠합니까? |
| 年年三月 長程路良      | 해마다 삼월이면 먼 여정을 오신                      |
| 爲 呵囑迎新景 幾何如    | 아! 우렁찬 벽제에 새 수령 맞는 광<br>경, 그것이 어떠합니까?  |

순흥이 학문의 고장임을 초점화 수법으로 우렁차게 노래했다. 제4행을 경계로 화제가 바뀐다. 전단은 향교에서 의욕적인 생도들이 전통적인 학습법에 의거해 학업에 열중하는 모습을 서술했고 후단은 매년 3월 위의를 갖추어 향교를 방문하는 수령 행차를 포착했다. 풍속을 교화하고 예의를 강론해서 인재를 육성, 문명 달성에 이바지하는 학교의 사명(61)을 모범적으로 실천함을 근거는 자랑하고 있다.

성리학의 도입과 보급에 앞장선 안향이 순흥의 향리 孚의 아들임을 우선 기억해야 할 일이다. 그는 ‘학교를 재흥해 어진 이를 양육한다(興學養賢)’를 필생의 과업으로 삼고 贍學錢 설치, 공자 및 그 제자 72명 화상 봉안, 제기와 악기 그리고 經史子集 구비 등으로 교육 환경 개선에 부신했다. 만년에는 晦庵의 진영을 비치해 경모했으며 晦軒이라 자호(62)할 정도로 주자학에 몰입했으니 주자학의 발전에 끼친 그의 공로가 이채롭다. 신흥사대부라면 그의 제자로 자처함이 금지일 것이다. 순흥인의 교육적 자부심도 그의 생장지가 순흥이었다는 데서 발원하고 또 그 때문에 교육적 열성이

61) 權近의 <永興府學校記>. 國家令府州郡縣 莫不置廟學 遣守令以奉其祀 置教授以掌其教 皆欲宣風化講禮義 作成人才 以裨文明之致也. 『동무선』권 80, 앞 책, 751면.

62) 이상 안향의 약기는 <安珦>, 『고려사』권105, 열전 권 제18에서 발췌했다.

높았을 수도 있다. 사람들은 안향하면 순흥을 연상할 것이요 순흥 역시 그를 길이 기리기 위해, 그리고 순흥의 탐방객들을 위해 그의 정신과 공적을 보전하고자 노력했을 터인즉 향교가 그 중심이었을 것은 자연스럽다. 稼亭 李穀이 ‘궁궐과 수도로부터 주현에 이르기까지 배움의 기틀이 황폐화되지 않은 곳은 드물다’<sup>63)</sup>라고 탄식했을 때 순흥은 그 ‘드문 곳’의 사례가 되었을 것이다. 순흥의 향교는 다른 주군의 그것들에 비해 주민들의 긍지든 아니면 관청의 정책이든 단연 활기가 넘쳤을 것이요 역사의 후광을 입어 더욱 돋보였을 듯하다.

첫 행은 향교의 천연적 배경을 묘사했다. 봉과 용이라는 영물과 군자 기상의 상징물 술에 각각 彩玉碧의 빛깔을 부여해 제재로 채용했다. 산수의 奇秀와 偉異한 인물의 배출은 상관적이라<sup>64)</sup>는 그의 사유를 참고하면 의미가 생동한다. 순흥의 향교는 이미 천혜의 자리에 위치했으므로 비범한 인재의 배출을 담지해 두었다는 함의다. 둘째 행은 순흥인들의 교육에 대한 집념과 노력의 형상화로 분석된다. 향교 주변의 야트막한 산<sup>65)</sup>과 작은 연못을 문방사우로 명명한 점은 ① 이곳 주민들의 무의식적 욕망의 발현, ② 학습 도구의 유족, 순흥인들의 높은 교육열, 중 하나이거나 둘 모두가 호명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제3행은 향교에서 공자를 사숙

63) <寧海府新作小學記>. 余惟本國文風之不振也久矣 蓋以功利爲急務 教化爲餘事 自王宮國都 以及州縣 凡曰教基 鮮不廢墜. 『동문선』권 71, 앞 책, 648면.

64) <襄陽新學記>. 莅是邑者 惟以簿書爲急 而慮不及焉 故山水之氣 盤礴鬱積 而無所發 子弟之性 桎梏襟裾 而無以脫 此豈非邑人之不幸歟. 『근재집』권 1, 468면

65) 산이 그다지 높지 않았기에 근재 당시에는 ‘低筆峯’이라 불리었을 듯하다. 세 문집 본이 공교롭게도 전부 저렇게 표기되었음에 주목한 유추다. 따라서 근재는 당대인들의 언어 관습을 존중했을 듯하다. 후대에 이르러 低와 紙의 발음이 유사한데다 문방사우로 호칭함이 학문적 열정을 자랑하고 또 후세들을 자극하는데 효과적이라 믿어 紙筆峯으로 개칭되고 이 본들도 그것을 그대로 반영하였으리라 본다.

하는 생도들의 주요 교과목과 그들의 포부를 밝혔다. 육경과 사서를 집중적으로 공략함은 위기지학과 위인지학을 겸수한다는 함의다.<sup>66)</sup> 교생들이 미래 사회의 주인이 되었을 때 진출과 은거의 어느 삶을 살든 군자로서의 지체와 품격을 유지하도록 인문학의 고급 정진을 익힌다는 것이다.<sup>67)</sup> 순흥 향교의 이런 교학면은 다른 지역과 대비하면 이색적이다. 타처에서는 구두에 숙달하고 시문에 공교롭거나<sup>68)</sup> 문장 수식 공부에 공들여<sup>69)</sup> 영리라는 현실적 욕구나 가치 실현에 경사되는데 반해 여기서는 심성의 고양과 도의의 연마 등 이상적 인간의 육성에 비중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간극이 크다. 순흥의 향교-생도가 사장보다는 도학에 전념하는 교학 경향을 노래하고 있다. 향교에서 계절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교과목을 운영하는 방식을 제4행은 진술했다. ‘春誦夏絃’은 周의 국학에서 실시한 교과과정 곧 봄에는 가악의 편장을 암송하고 여름에는 시

- 66) 다음과 같은 육경의 성격 규정에서 이런 면을 헤아릴 수 있다. <經解>. 孔子曰 入其國 其教可知也 其爲人也 溫柔敦厚 詩教也 䟽通知遠 書教也 廣博易良 樂教也 絜靜精微 易教也 恭儉莊敬 禮教也 屬辭比事 春秋教也 故詩之失愚 書之失誣 樂之失奢 易之失賊 禮之失煩 春秋之失亂 其爲人也 溫厚敦厚而不愚 則深於詩者也 䟽通知遠而不誣 則深於書者也 廣博易良而不奢 則深於樂者也 絜靜精微而不賊 則深於易者也 恭儉莊敬而不煩 則深於禮者也 屬辭比事而不亂 則深於春秋者也. 『禮記』권 23, 성대 대동문화연구회 영인 『禮記』(1985), 600~01면. 육경은 애초 詩經書經易經春秋禮記樂經을 일렀으나 악경이 인멸되는 바람에 周禮로 대체되었다.
- 67) 근재와 동시대 인물인 이성이 벼슬을 단념하고 가족을 대동, 다른 곳 아닌 죽계에 가서 정진을 공부하여 ‘五經筓’란 애칭을 얻었다고 한다. 죽계가 경사 강론의 메카로 유학자들에게 회자되었음을 알 수 있다. <李晟>. 秩滿 挈家歸竹溪村舍 不求祿仕 日以討墳典爲事...自少力學 卷不釋手 所至學者如雲 時人謂之五經筓. 『고려사』권 109, 열전 권 제22.
- 68) 李穀의 <寧海府新作小學記>. 李君乃能留意於斯 可謂之所先務矣 獨不知小學之規 當讀何書 當肄何事 若曰習句讀斯可矣 何必問洒掃應對進退之節 工篇翰則足矣 何必學禮樂射御書數之文 此乃鄉風村學耳 予爲諸生恥之 諸生勉旃. 『동문선』권 71, 앞 책, 649면.
- 69) 權近의 <永興府學校記>. 徒泥章句 不治身心 華其文辭 以徼利達而已者 非吾孫公興學之意也. 『동문선』권 80, 앞 책, 751면.

장의 음절을 금슬에 얹어 펼친다, 가을에는 예를 배우고 겨울에는 『서전』을 읽는다.<sup>70)</sup>를 대유적으로 표현했다. 과목의 특성을 파악하여 각 계절에 맞게 배당함은 수업의 효율화를 위해 바람직한 일이며 암송과 연주가 각각 이성 및 감성 영역의 소임인 바 둘의 균형 잡힌 신장은 곧 전인교육을 통한 원숙한 인격체의 양성과 부합된다. 유풍의 장점을 활용한 교과운영의 묘를 이 행에서는 노래하고 있다.

후단은 고래로 순흥 수령이 매년 3월에 釋奠을 올리고 생도들을 권면코자 廟學을 방문하던 거룩한 행차를 칭양한 것으로 이해된다. 행차의 주체를 두고 신임 교수<sup>71)</sup>, 신참자<sup>72)</sup>, 新任者<sup>73)</sup> 등의 추정치가 있었지만 앞의 ‘呵囑’과의 연결이 부자연스럽다. 고려 시대의 향교는 사당과 같은 건물을 사용했다. 경건하고도 엄숙한 분위기를 유지해야 하는 사당으로서의 소란스럽기 마련인 향교를 옆에 둬서 썩 조화롭진 않겠지만 관점을 바꾸면 생도들의 정신적 사부를 향시 곁에 둔다는 것은 그 교육적 의의가 오히려 그 부조화를 상쇄시키고도 남을 일이다. 석전 의례는 늘 사당에서 치러지고 그 의례의 초헌관은 해당 지역 수령이다. 제례에 참여한 그가 동일 공간의 향교를 순방하여 교생들을 권계하고 포양함은 공무의 하나다.<sup>74)</sup> 석전 참여와 향교 순시라는 공무를 수행코자 전후 수행원을

70) <文王世子>. 春誦夏弦 大師詔之瞽宗 秋學禮 執禮者詔之 冬讀書典 書者詔之 禮在瞽宗 書在上庠. 본 대문에 이은 역주는 이렇다. 誦 口誦歌樂之篇章也 弦 以琴瑟播被詩章之音節也 皆太師詔教之 瞽宗 殷學名 上庠 虞學名 周有天下 兼立虞夏殷周之學也. 『禮記』권 8, 앞 책, 255면.

71) 金倉圭, 「竹溪別曲 評釋攷」, 앞 논문, 54면.

72) 조규익, 『高麗俗樂歌詞景幾體歌鮮初樂章』(한샘, 1994), 143면.

73) 김동욱, 「<關東別曲><竹溪別曲>과 安軸의 歌文學」, 『泮橋語文論集』1 (1989), 96면.

74) 다음의 인용문들이 이런 사실을 논증해 주고 있다. 李穀의 <金海府鄉校水軒記>. 慶源李君國香 以都官正都 出守梁州 有廉能聲 國家以諸道守令 久不移易 頗有厲民 則沙汰其尤者 俾所近州兼治之 由是李君 權守是府 既視事 謁宣聖于文廟 退謂諸生曰 凡事君事親修己治人 皆於學得之 學若農夫



대동하고 호기롭게 순흥 고을에 들어서는 수령 행차를 제5~6행은 찬미하고 있다.

|                |                                     |
|----------------|-------------------------------------|
| 楚山曉 小雲英 山苑佳節   | 초산효와 소운영이 사는 산장에 봄<br>이 오면          |
| 花爛漫 爲君開 柳陰谷    | 꽃은 난만하고 버드나무 우거진 계<br>곡이 그대 위해 열리지요 |
| 忙待重來 獨倚欄干 新鶯聲裏 | 또 오시리라 자주 홀로 난간에서<br>기다리니 새 피꼬리 소리에 |
| 爲 一朵綠雲 垂未絕     | 아! 한 떨기 꽃인 양 검고 짙은 머<br>리 채 치렁치렁    |
| 天生絕艷 小紅時       | 천하 절세의 요염함 지닌 소홍시가                  |
| 爲 千里相思 又奈何     | 아! 천리 밖에서 서로 그리워함, 또<br>어떠합니까.      |

제4연은 절세의 미희들이 애절하게 ‘그대’와의 재회를 회구하는 사연을 담았다. 그녀들의 용태와 외적 동정에 무게를 둔 서술이 전단이라면 후단은 그녀들의 내면적 갈애에 집중했다. 일급의 매혹적인 기녀들이 남성을 고대하는 순흥은 풍정을 발산하기에 이상적인 고장임 부각시켰다.

이 연은 문학관습의 하나인 竹枝詞를 경기체가로 환생시킨 듯하다. 근제는 지방의 기녀들이 파견되는 사군을 맞아 해당 지역의 풍토색에 정애가 녹아든 죽지사를 지어 부르던 전통을 계승해 7절

---

然 苟怠其事 失其時 悔不及矣 諸生勉旃. 『동문선』 권 70, 앞 책, 631면. 李穀의 <寧海府新作小學記>. 禮州小學 掌書記李天年之所作也. 李君既佐府 見諸生曰 本國鄉校之制 廟學同宮 幾乎褻矣 而又引諸童子 使之郡聒於大成之庭 其爲褻益甚矣 乃與諸生 謀於父老 卜之於府之東北 役以農隙 不日而成 當中而殿 以垂魯司寇之像 左右爲廡 以爲擊蒙之所 乃廊乃垣 既輪既奐 於是 擇諸生之稍長者 爲之教誨 君日一至 考其勸慢而勸懲之. 『동문선』 권 71, 앞 책, 648면.

10수를 지은 경험이 있었다.<sup>75)</sup> 그것은 그에게 성찰의 계기를 갖게 했을 듯하다. 향토색을 생동감 넘치게 표출하면서 심미욕구를 충족하자면 표현매체가 국어요 향악으로 향유해야 함을. 제 4연은 바로 그런 자각의 형상이 아닌가 한다.<sup>76)</sup>

초산효와 소운영, 그리고 소흥시는 모두 기녀명이다. 당시 지방을 순력하는 사군을 접대하는 기녀<sup>77)</sup>들에게는 한결같이 고유명이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sup>78)</sup> 순흥도 예외일 수는 없다. 그녀들의 숙식처는 순흥이 소백산을 중심으로 형성된 고장이라 자연스럽게 산원으로 불렸을 것이다. 제2행은 중의적 수법으로 묘미를 살렸다. 표면적으로는 봄철을 맞아 꽃들이 만개하고 찾아 올 그대를 위해 골짜기를 따라 난 길가에는 버드나무가 그들을 드리웠다 라고, 산원 주변과 그곳으로 통하는 길의 경물 묘사로 읽힌다. 경물의 전경화는 등장 인물의 내외적 상태와 등가를 이룬다. ‘난만한 꽃’은 그녀들의 꽃같이 화사하게 피어나는 미모를 상징한다. ‘버드나무 그늘진 계곡’은 여성들의 가장 은밀한 곳이 대단히 매력적임을 암유했다 하겠다.<sup>79)</sup> 관능미가 넘치는 초산효와 소운영은 애정 추구에 능동적이다. ‘남’이 하마나 오시려나 기다리면서 자주 난간

75) 근재의 <죽지사>는 <白文寶按部上謠八首并序引>, 『근재집』권 2, 454~5면에 수록됨.

76) <죽지사>의 경기체가화에 대해서는 줄고, 「안축의 <관동별곡> 창작시기와 그 배경」, 앞 논문, 30~3면 참조.

77) 주군에 이미 관기가 예속되어 봉사하고 있었음은 다음 기록이 증언한다. 忠烈王五年己卯(1279년)에 命選州郡倡妓有色藝者ᄃ야 充教坊ᄃ다. 李能和, 한국학연구소 영인, 『朝鮮解語花史』(1977), 27면.

78) 근재는 기녀들에 가탁해 앞서 본 죽지사와 7인 절구를 지은 적이 있는데 그 기녀들에게는 고유명사가 주어졌다. 예컨대 四時紅, 小蠻, 眞紅, 滿月, 金花 등의 방식이다. 『근재집』, 앞 책, 452~3면.

79) 柳陰谷을 여성의 음부라는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방증은 직전의 ‘爲君開’를 용사로 보고 그 원시 즉 盧照鄰의 <長安古意>을 살핍으로써 얻을 수 있다. 羅襦寶帶爲君解 燕歌趙舞爲君開라는 두 구는 문제의 구절과 발상이 흡사하다고 하겠다.

에 기대어 멀리 눈을 준다. ‘重’은 만남이 두 번째 이상임을 알리는 동시에 기다림의 고통도 실었다. 암수 화락의 표상인 찰꼬리가 새해 들어 서로 희롱하는 소리는 외로운 심사를 더욱 부채질한다. <동동>의 4월과 <한림별곡>의 제7장에도 이것이 채택<sup>80)</sup>된 점으로 미뤄 당대 인기 높은 관용구였을 듯하다. 애정에 목말라 하는 여성이 그 욕구를 적극적으로 해소하려는 정상을 제3행에서 묘사했다. 제4행은 격정의 분출에 합당하게 파격을 취했다. 화자는 기녀의 얼굴과 음부를 형용하고 대상을 고대하는 적극적 행위를 묘사하면서 수용자들의 성적 욕망을 자극해왔다. 성적 자극의 강도 순으로 대상을 나열하다 이 행에 이르러 정점에 선다. ‘綠雲’은 짙고 푸른 빛 윤기가 나는 부인의 머릿결을 의미한다.<sup>81)</sup> 당시 기준으로 남성들의 성욕을 충동하는데 이 같은 머릿결이 으뜸이라는 속신이 있었던 것 같다. 그 뇌살적인 대상 앞에서는 판단이 중지되는 형국이라 탄상이 절로 터진다는 점을 제4행은 함의하고 있다.

후단에서는 선천적으로 지고의 요염함을 지닌 소흥시가 또 천리밖 순흥에서 상사병으로 앓는 정경이 어떠하겠는가? 라고 하여 남성들의 정염에 불을 지른다. ‘또’는 앞서 나열한 성적 자극물보다 하나 더 강력한 것이 있음을 뜻하는데 바로 소흥시라는 것이다. 동침한 적이 있는 인물이라면 오지 않고 어떻게 배겨내겠니 라는 반어가 들어 있다. 풋풋한 자색과 芳香을 겸유한, 갓 핀 메꽃같은 그녀가 ‘그대’를 사모하다 지쳐 병들었다는 진술은 수용자더러, 특히 그녀와 욕정을 나눠 본 인물에게는 격렬한 정욕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순흥은 육감적인 기녀들이 풍류운사를 고대하는 고장이

80) <動動>의 4월: 四月 아니 니저/ 아으 오실셔 곳고리새여.

<翰林別曲> 제7장: 위 嘯黃鸝 반갑두세라.

81) 한자문화권에서는 이미 낮익은 어휘로 많은 시인들이 애용했다. 杜牧의 ‘綠雲搖搖 梳曉鬢也(<阿房宮賦>)’와 元稹의 ‘芙蓉脂肉綠雲鬢(<劉院妻詩>), 그리고 고려 李頔의 金釵兩鬢綠雲垂(이능화 앞 책, 24면) 등이 그 범례가 된다.

란 이미지를 제4연은 힘주어 강조하고 있다.

|                |                                         |
|----------------|-----------------------------------------|
| 紅杏紛紛 芳草萋萋 樽前永日 | 붉은 복사꽃 난분하고 방초는 무성<br>한데 긴긴날 술통을 끼고     |
| 綠樹陰陰 畫閣沈沈 琴上薰風 | 길게 푸른 나무그늘, 깊이 잠긴 단<br>청 집, 거문고엔 남풍 인다. |
| 黃菊丹楓 錦繡春山 鴻飛後良 | 황국과 단풍이 비단에 수놓은 듯<br>봄 산인가 기러기 날아간 뒤에   |
| 爲 雪月交光景 幾何如    | 아 눈과 달빛이 교유하는 광경, 그<br>것이 어떠하겠습니까?      |
| 中興聖代 長樂太平      | 성대를 중흥시켜 오랫동안 태평을<br>즐기리니               |
| 爲 四節遊是沙伊多      | 아 사계절 놀고 지냅시다 그려.                       |

순홍은 네 계절 경물의 변화가 뚜렷하니 성인이 통치했다던 저 삼대를 중흥시켜 태평을 길게 누릴 만한 곳이므로 사철을 여기서 유상하자는 게 제5연의 주지다. 전단은 순홍의 사계절 서경에 집 중했다. 후단에서는 정치를 재건해 태평을 누릴 수 있는 고장이 이곳이므로 사시절의 계절감을 여기서 만끽하자고 권유했다. 사계의 엄정한 구분과 성대 중흥이 약속되는 고장으로서의 순홍을 끝 연은 예찬했다.

각 계절의 특징을 계절 순으로 각 행에 배치함이 제4행까지의 조직 원리다. 제1~4행에서는 봄~겨울 사철의 표나는 경물들을 순서대로 나열했다. 순홍의 사계는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균질적인 자연미를 생성한다는 작자의 주관적 판단이 토로되었다. 계절감에 차이를 없애는 이런 진술은 찬미의 극대화를 겨냥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사철 여기서 놀고 지내자는 끝 행의 청유가 결코 수사가 아니다.

제4행까지의 율격을 살펴보면 순홍의 사계를 고루 찬양했다는 견해가 탄력을 받는다. 음보 면으로는 경기체가의 율격 모형에 충실

하지만 제1~2행이 둘째 음보까지 4음절을 취한 점은 변격이다. 균일하게 4음절씩 각 음보에 배당하겠다는 작가의 의지로 풀이되며 제4행의 -景에 4음절을 부여한 데서 더욱 입증된다. 작가가 각 계절의 경관에 쏟은 고른 애정의 외현적 장치로 분석된다.

주목할 점은 사계절 자연물 변화를 순흥의 자량거리로 내세웠다는 사실이다. 그가 예시한 사계의 경물 변화는 사실 순흥만의 강점일 수 없다. 한반도 어디서나 대체로 관찰할 수 있는 풍경이다. 차라리 순흥만이 보유한 고적이나 명소 등으로 탐승심을 자극하거나 임의로 순흥 팔경을 지정해 호기심을 부추겼더라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었을 듯하다. 그러나 이런 추정은 물질적이고 따라서 조야하다. 그는 기암괴석과 같은 이채로운 물상들보다는 淡然閒曠한 사물들의 묘리 탐구를 선호한다고 고백한 적이 있다.<sup>82)</sup> 감관을 즐겁게 하는 관광품보다는 담박하면서도 幽閑한 자연 형상에 오히려 끌린다는 표명이다. 성리학자다운 풍모요 발언이다. 유행하는 천리를 온전히 현시하는 물상을 관조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시각, 청각, 촉각, 미각 등 주요 감각기관들을 자극하면서 외현하는 사계 경물들의 순환은 미적 대상이면서도 관물궁리의 정힘물이라는 점에서 사대부들의 찬미를 받기에 족하다.

후단은 직설적 언술이면서 시상이 비약했다. 사계절의 자연 변화 완상과 제5행과는 시선의 층위가 다르다. 심미적 관점에서의 이런 약점은 후단의 사명이란 점으로 보완할 수 있을 듯하다. 후단은 제5연의 종결임과 동시에 <죽계별곡>의 대미다. 이런 이중의 사명을 감당하느라 약간의 무리를 빚지 않았나 한다.

중흥성대와 장락태평은 인과 혹은 선후의 짜임이다. 전자를 성취해야 후자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성군이 다스리던 시대를 중흥함’이 우선인데 그 대책은 무엇인가. 그에 앞서 도대체 ‘성대’란

82) <鏡浦新亭記>, 『근재집』권 1, 467면.

어느 시대를 지칭하는가. 유학이 복고적임을 염두에 두면 삼황오제가 다스리던 신화적 시대가 즉시 연상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리 멀리 소급할 일이 아닐 듯하다. 근재 당시 사대부들은 무인 집정기와 원 예속기를 단절의 시대로 상정한다. 문인들이 지배 구도에서 추방되거나 아류 계층으로 밀리고 무인과 부원파들이 득세한 기간을 역사 전개에서 절단하려는 사고다. 고려 전기 말엽에 궁중악이 확립되었는데 공민왕 때 다시 제정한 점이 이를 방증한다. 무신정권부터 공민왕에 이르는 기간은 궁중악다운 궁중악이 없었다는 전제가 여기에 깔려 있다. 따라서 ‘성대’란 곧 의종 이전의 고려 전기 문화 난숙기를 의미한다. ‘중흥성대’란 그때의 문물제도를 복원 내지 재건하자는 의미로 파악된다. 한다면 성대를 일으킬 주체는 누구인가. 그들은 바로 전단에서 사시 경물의 변화 현상을 통해 그 이면의 묘리를 찾아 즐기는 신흥 사대부들이다. 이들이 ‘태평을 오래 즐기자’함은 제재나 구속을 받던 신분에서 최고위층으로 복귀해 자신들의 이념과 소신을 마음껏 펼치자는 뜻이다. 내적으로는 권문세족에서, 외적으로는 몽고 간섭에서 탈피해 주도적으로 그리고 자주적으로 나라와 민족을 이끌자고 권유하는 것이다. 사실이 이렇다면 사철 순흥을 찾아 놀자는 청유도 유락이나 탐승으로 만족할 수 없다. 투명한 사계의 변화를 통해 자연의 묘리 운행을 체인하자는 것이다. 그런 경험의 누적은 내면의 함양과 성숙을 낳고 민족의 현실을 냉엄히 성찰하는 동인이 된다. 고향이 사철 山紫水明하다는 자랑은 결국 나라 예찬의 대유이며 민족 중흥의 구심력으로 작용한다는 논리로 읽어 무방할 것이다.

### III. 텍스트의 시가사적 위상

#### 1. 경기체가 모형의 선용

<죽계별곡>은 전체가 5연이지만 가운데 3개 연의 순서는 자의적이라 보인다. 제1·5연에 ‘중흥’이란 어사를 사용함으로써 이른바 수미상관식 구조를 취했다. 두 연이 발단과 결구임을 암시한다. 그러나 누정의 순력(2연), 향교의 활기(3연), 기녀들의 정념(4연)이란 차례가 어떤 미학적 논리에 근거했는지는 모호하다. 짐작컨대 각 대상에서 환기할 수 있는 정서 강도의 순서가 아니었나 싶을 정도다. 이것은 또한 수용자들의 참여를 허용한다. 순흥을 기념할 수 있는 제재를 근재와 다른 시각으로, 혹은 같더라도 대체나 증감이 가능하다는 암시이기도 하다. 따라서 <죽계별곡>은 수미상관식 구성이 되 내포된 연의 신축을 조정할 수 있는 열린 구조라 할 것이다.

흔히 경기체가 양식은 형식이 생명이라 불린다. 엄격한 형식이 경기체가 갈래의 미학을 배타적으로 실현하며 역으로 형식의 변이 내지 붕괴는 그만큼 미감 생성에 불리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죽계별곡>도 형식의 점검이 필수적이다. 경기체가 장르의 기본형<sup>83)</sup>과 대조하여 그 모습을 표로 나타내 본다.

83) 필자가 가정하는 경기체가 율격 모형은 다음과 같다(—는 음보를, 아래바  
아 숫자는 음절을 각각 표시한다).

제1행:  $\frac{3}{—} \frac{3}{—} \frac{4}{—}$   
 제2행:  $\frac{3}{—} \frac{3}{—} \frac{4}{—}$   
 제3행:  $\frac{4}{—} \frac{4}{—} \frac{4}{—}$   
 제4행: 위 2(4)景 幾何如(괴 엇더흐니잇고)  
 제5행:  $\frac{4}{—} \frac{4}{—} \frac{4}{—} \frac{4}{—}$   
 제6행: 위 2(4)景 幾何如(괴 엇더흐니잇고)

이렇게 음보와 음절을 병존시킨 이유는 한국 시가의 율격 자질이 저 둘의 어느 한쪽에만 절대적으로 의존한다기보다는 상호 역학 속에 존재한다는 필자의 믿음 때문이다. 음보 방면으로는 김문기의 견해를, 음절수의 방면

| 행  | 연<br>음보 | 제1연 | 제2연 | 제3연 | 제4연                  | 제5연 |
|----|---------|-----|-----|-----|----------------------|-----|
|    |         |     |     |     |                      |     |
| 1행 | 첫째      |     |     |     |                      | +1  |
|    | 둘째      |     |     |     |                      | +1  |
|    | 셋째      |     |     |     |                      |     |
| 2행 | 첫째      | +1  |     |     |                      | +1  |
|    | 둘째      | +1  |     |     |                      | +1  |
|    | 셋째      |     |     |     | -1                   |     |
| 3행 | 첫째      |     |     |     |                      |     |
|    | 둘째      | -1  |     |     |                      |     |
|    | 셋째      |     |     |     |                      |     |
| 4행 |         |     |     |     | 爲 一朵綠雲垂未絶            |     |
| 5행 | 첫째      |     | 없음  |     |                      |     |
|    | 둘째      |     |     |     | -1                   |     |
| 6행 |         |     |     |     | 爲 千里想思又 奈何 爲 四節 是沙伊多 |     |

(+는 기준형에서 넘음을, -는 반대로 모자람을, 제46행의 빈 공간은 정격을 각각 지시한다)

표로 본 <죽계별곡>의 현저한 율격적 특성이 의미하는 바를 새겨 보자. 첫째로, 제5행이 5연 전체에 걸쳐 4음절 2보격이란 점이다. 표준형이 4음절 4보격임을 감안하면 2음보가 부족하다. 역시 근재가 창작한 <관동별곡>도 해당부분이 일률적으로 2음보씩이다. 이런 현상을 두고 동어 반복의 관각의 낭비를 막으려는 결과지 실제 연행시는 재창했으리라는 점을 <죽계별곡>보다 거의 한 세기

으로는 성호경의 주장을 수용하되 필자가 일부 조정했다. 김문기는 제46행을 각각 4음보로 나누었으나 과연 '위'라는 감탄사가 여타 부분과 등장성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므로 수용하기 어려웠다. 성호경은 제5행의 4음보를 둘로 쪼개어 전체를 7행체로 간주했다. 『금합자보』에 채록된 <한림별곡>의 악보를 논거로 삼았기에 어느 정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러나 문학적 분단이 음악적 그것과 언제나 일치하지는 않으며, 해당 부분 전부가 大葉이란 하나의 악절명으로 불린다는 점에서 굳이 2행으로 나눌 필요가 있겠느냐는 회의 때문에 한 행으로 처리했다. 金文基, 「景幾體歌의 綜合的 考察」, 權寧徹·金文基外, 『韓國詩歌研究』(螢雪出版社, 1981), 124~5면. 成昊慶, 『朝鮮前期詩歌論』(새문사, 1988), 238면.



이른 <한림별곡>을 논거로 주장하는데 학계는 동조적이다. 그러나 <한림별곡>의 율격 형상이 과연 지금 우리가 대면할 수 있는 그 대로인지에 대한 이견이 상당하다는 점<sup>84)</sup>에서 통설에 기대기에는 어딘가 미흡하다는 느낌을 준다. 그것보다는 제5행은 2음보가 원형이었는데 악곡 내지 문화의 요청에 부응해 후대에 4음보로 확대되었다 라면 어떨까. 2보격 3보격이 한민족 고유의 시행 율격이었는데 중세 보편주의의 침윤과 더불어 4보격으로 대체되었다는 것이다. 근재가 <죽계별곡> 제작에 임할 때에는 여전히 2보격 3보격이 우세했으며 그런 율격 전통을 습용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나친 비약일지 모르나 <죽계별곡>은 경기체가 양식의 원상을 보전한다고 평가될 일이다. 둘째, 음절수의 과부족 현상에 대한 해석이다. 이런 현상은 ① 정형이 확립되는 과정상의 실험 상태, ② 정형의 기계적 반복이 초래할 단조로움이나 지루함에서 벗어나려는 의도적 위배, ③ 고유명사나 기성의 한자어 구사 등으로 예상되는데 <죽계별곡>의 경우는 ②와 ③이 부합할 듯하다. 그것은 제5행을 제외하면 제3연이 경기체가 율격 모형을 실현했다는 점으로 뒷받침된다. 제3연은 형식을 찾아가던 가운데 우연히 도달한 경지가 아니라 작가의 창작 과정을 지배하던 율격 모형이 고스란히 구현된 양태로 보아야 합리적이다. 텍스트 전편을 통해 기껏 漢字 한 글자의 가감이, 그것도 소수의 부분에서 실천되었다는 사실 때문이다. 그렇다면 근재에게는 이미 경기체가 양식의 율격 모형이 정립되었으며 가능한 그것을 준수하려 고심했다고 할 것이다. ‘—景 幾何如’라는 관용적 표현을 벗어난 점도 동격으로 해석된다. 저것은 고조된 감흥을 표출하고 전달하고자 선택된 수사적 의문 곧 설의법이란 점은 상식이다. 일반 평서문이나 감탄문 혹은 청유문으로는 진술하기 버거운 감흥을 대리한 셈이다. 그렇다면

84) 개략적인 논전 양상은 줄고, 「安軸의 <관동별곡> 反芻」 앞 논문, 228~31에서 정리되었음.

설의법과 평서문·감탄문·청유문은 상호 호환될 성질임을 처음부터 배태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저들은 필요하면 언제나 교체될 수 있는 그런 성격이다. 관용적 표현이 식상하거나 진술 내용과 해조를 이루지 못한다고 여기면 대체해도 무난한 것들이다. 장르 표지로서의 관용적 표현이 일관되게 구사되지 않았다 하여 시형 확립 이전의 혼란기를 반영한 현상이라 보기는 무리다.

근재는 이미 경기체가의 율격 모형을 숙지하고 있었으며 <죽계별곡>은 그것을 형상화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제5행은 일률적으로 2음보가 부족하나 그것을 한 번 연속하면 4음보가 된다는 면에서 4음보로 진전될 소지를 이미 예비해 두었다. 제3연에 후단이 없으나 근재 소작인 <관동별곡>의 9연과 합쳐 전체 13개 연 중 하나라는 점에서 전승 도중 누락되었음을 반영한다(앞 장 참조). <죽계별곡>은 14세기 중엽 경기체가 양식의 시형을 대변한다는 점에서 그 시가사적 위상을 자증해 준다.

## 2. 표현기법들의 규범화

<죽계별곡>의 현저한 특성들 중 시어의 선택, 열거법과 점강법, 수종의 제재들은 후속하는 동종 갈래에서도 친근성을 보인다. 이는 문학관습이나 전통의 하나로 설명되어 마땅할 현상이며 <죽계별곡>의 시가사적 위상을 가늠하는데 반드시 유념해야 할 요소다. 이들에 국한에 간략히 논의해 보자.<sup>85)</sup>

85) 우리의 작업을 헛수고라 비난할 시각도 예상할 수 있다. <한림별곡>과 <죽계별곡> 사이에는 우리가 주목하는 표현기법에도 상통하는 점이 많으며 따라서 우리가 주장하는 <죽계별곡>의 시가사적 위상을 <한림별곡>에 양도해야 할 처지에 놓일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자가 대략 한 세기 전에 산생된 점은 인정하되 그 표현법, 시형, 크기 등을 확정하려면 많은 연구가 수반되어야 한다. 현재 대면할 수 있는 텍스트는 어느 시기까지의 누적된 면모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반해 <죽계별곡>은 창작 당시의 모습을 거의 완벽하게 보존하고 있는 듯하다. 비록 지금은 알 수 없

소수의 향찰식 표기나 고유 지명을 제외하면 <죽계별곡>의 시어들 거의가 용사에 의존했음을 한 연구는 극명하게 보여준다.<sup>86)</sup> 출처가 명백한 어구를 시어로 부린 이 방식이 계산된 것이냐 아니면 작가의 체질화된 관습이냐, 과연 이런 짜깁기식 글쓰기가 정당하며 존중되어야 하느냐 아니면 모방 내지 표절이므로 폄하할 것이냐의 논의는 본고의 주안점과 거리가 있으므로 그 당부를 따질 자리가 아니라 미루어둔다. 다만 이런 글쓰기 방식이 수용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내지 효과는 짚어야 할 것이다.

우선 근재가 수많은 전고에 밝고 또 그 구사력이 탁월하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하겠다. 그는 호한히 독서했고 독서 내용을 强記했으며 그들 활용에 능숙했음<sup>87)</sup>을 시사한다. 이는 나아가 그의 인문적 교양과 문학적 표현이 비상했으며 중국 문사들에 꿀릴 것이 없음의 완곡한 표현으로 읽을 수 있다. 특히 예의 전고들은 중국의 자연, 풍물, 역사에서 자양분을 얻었다. 뒤집으면 순흥도 그 전고들을 생성할 기반이 구비되었다는 믿음을 반영한다. 중세 사회의 원 지배기라는 상황에서 근재가 표현한 이런 면은 순흥이란 고장의 세계성과 개체성을 선양하는데 기여했다고 하겠다.

경기체가 갈래의 작품 대부분이 集句詩처럼 전고 위주의 조어법을 준용하고 있다는 점 논증이 불필요할 일이다. 향유층의 독특한 자존의식을 과시하는 수법이면서도 향유층의 기반을 스스로 제한하는 자충수라는 양면으로 읽혀진다. 기능 내지 역할이야 어떻게

지만 이전의 동종 작품들이 마련한 장치나 관습들을 인습하고 변용했으리라 짐작은 되지만 그 방식이나 정도는 미궁이다. 그런 점을 무시할 수야 없으나 지금의 형편으로는 <죽계별곡>에 사용된 몇 표현기법들은 처음 준비되었거나 구사되었다고 보아도 시비할 단계는 아닐 것이다.

86) 金倉圭, 「竹溪別曲 評釋攷」, 앞 논문, 45~9면.

87) 안축의 <傳>과 <墓地銘>에 ‘태어나면서 남보다 총명하여 책을 읽을 줄 알았으며 배우기에 힘썼다. 문학 언어 구사에 공교로웠으며...生而穎悟 知讀書力學 工文辭’라는 서술이 상투적인 입전자의 겸사가 아니었음이 판명된다. 『근재집』권 4, 앞 책, 467면.

평가되는 근재가 그것의 개척 내지 확립에 선구자라는 점은 망각될 수 없다. 줄여 말하면 경기체가 양식에 확연한 전고 위주의 시어 부림은 근재가 처음 도모했거나 아니면 다져주었다 라고 해야 할 일이다.

개별 연의 구성 원리에 관해서는 3가지 이견이 제기되었다. 각 연이 개별화와 포괄화의 원리<sup>88)</sup>, 사물의 나열적 제시와 주관의 수렴적 찬양<sup>89)</sup>, 목표 지향적 결말의 전제와 파토스(pathos)적 결말<sup>90)</sup>로 각각 짜여진다는 주장이 그들이다. 여유가 없어 이들을 정세히 논의할 수 없어 유감이다. 완형으로 평가할 수 있는 <죽계별곡>의 제 3연을 검토함으로써 상기 견해들의 장단점을 간접적으로나마 살피기로 한다.

제3행까지는 줄곧 현상이나 사물들이 나열되므로 열거 정신이 지배적이다. 3행 공히 제1·2음보가 수식하는 역할을, 제3음보는 피수식의 입장에 놓인다. 한편 제1→3행으로의 시상 진전에는 초점화 수법이 구사되었다. 첫 행이 원경이요 둘째 행이 근경이며 셋째 행은 관찰 인물이다. 각 행의 피수식어만 연결하면 ‘벽산송록에 위치하고 문방사구를 두루 갖춘 향교에서 부자 문도’란 어구가 도출된다. 주어 ‘부자 문도’는 서술어가 필요한데 제4행의 ‘x경’에서 x가 그 구실을 맡는다. 그러니까 x까지는 하나의 문장인 셈이다. 그 문장은 ‘경’을 수식하는 관형절이 되며 ‘경’은 다시 주어가 되고 ‘幾’는 그것과 동격의 문장성분이다. ‘何如’는 주지하듯 수사적 의문형의 서술어다. 정리해보면 제1~4행은 관형절을 내장한 하나의 포유문에 불과하다. 결국 초점화의 종착지는 제4행이며 ‘경’ 이전까지의 서술을 ‘경’ 이하가 반복함으로써 강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모습이다. 열거법이 점층적인 효과를 발휘한다는 명

88) 조동일, 『한국문학의 갈래이론』(집문당, 1992), 252~5면.

89) 신영명, 앞 논문, 266면.

90) 성호경, 『조선전기시가론』, 앞 책, 275~6면.

제91)가 입체적으로 논증된다. 정리하면 각 행 차원에서는 열거와 수식—피수식의 수법이 주종이요 각 행의 바깥에는 지평을 달리하는 열거와 초점화(서구 수사법으로는 열거법과 점강법에 해당된다)가 우세하다. 종횡으로는 열거법이, 다시 종적으로는 점강법이 제1~4행을 지배하는 기법의 중추라 부를 만하다.

제5~6행은 전단에서 미진했던 내용을 부가한 부분으로 간주된다. 주요한 화제와 제재들은 전단에서 표현되고 후단은 첨가하고 보완한 것들을 다룬 형상이다. 제5행의 첫 음보가 시간적 배경을, 제2음보가 공간적 배경을, 그리고 제6행은 위엄을 떨치는 수령의 행차를 각각 그렸는데 여기서도 나열과 초점화는 미약하나마 감지된다. 그러나 전단은 후단과 관점이 달라졌고 시상이 평면적으로 진행되어 긴장도가 이완되었으며 또 악곡상 엮이라 불린다는 점에서 부가 이상의 역할을 부여하기란 어렵다. 그러면서도 나열과 초점화란 전단의 시상 전개 원리는 유지된다.

나열은 펼침을, 초점화는 집중을 요구하는 의식활동이다. 전자가 인식의 평면을 확장시키는 수평적 사고라면 후자는 그것을 심화시키는 수직적 사고다. 어떤 사상에 대한 수직과 수평이란 두 방향에서의 접근은 그것의 입체적 해명을 기약한다. 이런 사유 방식은 觀物窮理를 일상의 지침으로 삼는 신흥사대부들에서 전형을 본다. 그들은 處事接物이 일과다. 환언하면 그들은 다종다양한 객관세계를 세밀히 관찰하며 그 체험을 소중히 여긴다. 바로 관물 정신의 발로다. 우리의 문맥으로는 나열 정신에 대응한다. 그것은 체험의 개체가 무한히 늘어나기를 지향한다. 그들은 이 경지에서 안주하거나 만족하지 않는다. 만약 그랬다면 그들은 선배나 권문세족들과 하등 다를 바 없다. 그들은 다채로운 형색의 물상들을 유심히 살펴 분류하고 집합시키면서 그들을 관류하는 원리 찾기에 부심했으니 곧 공리다. 그들은 사물의 구경적 원리를 발견해야 비로소

91) 김옥동, 『수사학이란 무엇인가』(민은사, 02), 240면.

흡족해 한다.<sup>92)</sup> 그것은 바로 초점화의 다른 이름이다. 열거와 초점화가 단순히 <죽계별곡>을 제어하는 기법으로 보는 것은 피상적이다. 그 향유층의 사유 구조가 투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열거법과 점강법의 활용 양상이란 면에서 <죽계별곡>은 경기체가 선구자다. 전체 5연 중 끝을 제외하면 두 기법은 준수된다. 그들이 경기체가 양식의 중추적 장치라는 점을 작가가 통찰했었다는 반증이다. 마지막 연의 이탈은 이 장르가 보이는 하나의 관습-마지막 연에서 심한 과격을 보인다-의 준행이다. 두 기법이 가다듬어지는 과정의 반영이 아니라 완료된 후의 의도적 파탈이다. 그런데 한 세기 이상 앞섰다는 <한림별곡>을 뜯어보면 의구심이 생긴다. 제7장외에는 점강법이 구사되었다고 단언하기에는 주저된다. 대부분의 연에서 제1·2행이 심하게는, 제1·2·3행이 수평적 열거에 머물고 있다. 기법상의 변천 원인과 과정에 대해서는 별고로 미룬다. 다만 열거법과 점강법의 확립이란 면에서는 <죽계별곡>이 가장 앞선다 단언해도 무난할 듯하다. 소수의 작품을 제외하면<sup>93)</sup> 마지막을 장식한 <충효가>에까지 열거법과 점강법은 포착된다. 경기체가 장르와 생애를 함께 했다는 의미요 중추적인 문학 장치였음을 웅변한다. 이런 면에서 근재 및 <죽계별곡>에게 경기체가 장르의 구조를 확립시켰다는 영예를 수여해 마땅할 일이다.

유사한 제재나 이미지가 후속하는 작품들에 지속되는 현상은 선구적인 작품의 공로로 돌려주어도 무방할 것이다. 물론 한 작품 전체의 경향이나 시대의 변전에 따라 동일한 제재나 표상물도 전

92) 정도전의 다음 시구에서 그런 정신적 지향의 표본을 볼 수 있을 듯하다. <陽村賦>...包乎有形 混兮無間 闢兮無窮 前無其時 後無其終 孰主張是 道爲之宗 孰得其妙 陽村權公 博觀萬殊 約之一中 勤而守之 齋戒吾身 不遠而復(하략). <贈陽谷易師>...萬物雖未形 天心正分明 縱橫變化殊 盡向一中生 此理亮照晰 自古非宵冥(하략). 『삼봉집』권 1, 『한국문집총간』5, 288 및 290면.

93) <祝聖壽>와 주세붕 및 권호문의 작품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혀 다른 의미로 차용되는 경우가 없지 않지만 그것은 이차적인 문제다. 그런 물상이나 이미지를 채택한 동인을 캐고 들어서 <관동죽계별곡>에 시원이 닿는다면 두 작품의 시가사적 위상 설정에 그 사실은 참작되어야 할 일이다. <죽계별곡>은 ‘죽령 남, 안동 북, 소백산 앞’이란 지형 제시로 출발한다. <관동별곡>에서도 동종의 발상법이 보인다(제 6연). 근재의 두 작품에 나타나는 이 기법은 후대 작품들에 간헐적으로 채택되었다.<sup>94)</sup> 이 기법의 개척적 공로는 근재에게 돌아가야 할 것이다. 누정과 기녀를 제재로 선정한 작품들에도 동일한 논리를 적용해 무난할 것이다. 누정은 <관동별곡>(제68연)에서 출발하여 <화산별곡>(제6연)과 <가성덕>(제6연), 그리고 불가계 텍스트에서도 습용된다. 특히 <금성별곡>의 경우에는 <죽계별곡>의 이미지나 모티브를 차용한 흔적이 역력하다.<sup>95)</sup> 당대 문인들이 <죽계별곡>을 애창했다는 논거로 삼아 마땅하다. <금성별곡>과 <화전별곡>에 등장하는 기녀는 <죽계별곡>과 이미지에서 차이가 난다. <죽계별곡>의 기녀들이 남성들의 풍정을 충동하는 관능에 비증을 두었다면 <금성별곡>은 연예적 재능에, <화전별곡>은 얼굴색이나 탄주 기량 등에 주안을 두어 강조점을 달리 했다. 기녀들에 대한 이미지는 이렇듯 변모했지만 그것을 제재로 가려 쓴 발단은 근재에게서 찾아야 할 것이다.<sup>96)</sup>

94) 雪嶽東 洛山西 襄陽風景

降仙亭 祥雲亭 南北相望(<關東別曲>제 6장)

華山南 漢水北 千年勝地. (<霜臺別曲> 제1장)

華山南 漢水北 朝鮮勝地. (<華山別曲> 제1장)

左望雲 右錦山 巴川高川(봉내 고내). (<花田別曲> 제1장)

95) 둘 사이에 상관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을 적시하면 碧山松麓→碧松亭. 齊隱 鄉校→高隱 鄉校. 六經→漁經獵史. 夫子門徒→七十門人三千弟子. 春誦夏絃→切磋琢磨 등과 같다.

96) <한림별곡>에도 기녀가 등장한다. 일지홍(제 6연), 婢妉仙女(제 7연)은 기녀로 해석된다. 그러나 여기서는 논외로 삼고자 한다. 이 텍스트의 생성 및 정형 연대나 과정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 3. 향토 예찬의 남상

근재가 <죽계별곡>을 창작한 동인과 그 경위는 앞서 살폈다. 그것을 환기하면 <죽계별곡>의 태반은 애향심이라 일러 과언일 수 없다.<sup>97)</sup> 한다면 그가 왜 애향심의 고취에 열의를 보였을까. 그 해명의 단서를 ‘양작중흥’, ‘중흥성대’와 같은 작품 내적 정보에서 얻어낼 듯하다. 여기서 중흥이 침체와 쇠미, 실의와 좌절 등과 대립적인 개념임은 명백하다. 당대의 삶 혹은 정신계를 저렇게 소극적·이요 부정적으로 진단한 것이다. 그것은 외적으로는 원에 복속하고 내적으로는 호강한 巨家大族들에게 침탈당하는 한민족의 현실을 비극적으로 인식한 결과다. 민족이 처한 곤경에서 탈피하는 상태를 근재는 중흥으로 표현했다. 곧 원이 강제하는 문물과 제도를 해제하고 고려 고유의 그것들로 복원하는 한편 신흥사대부들이 발견한 자연의 이치가 정치 현실에 반영되고 실현되는 상태라는 의미로 그는 중흥이란 시어를 사용한 것이다. 그렇다면 그의 애향심은 조국애로 치환된다. 고려의 자주와 독립을 앞당기거나 고취하는 매개로 향토애를 부각시킨 것이다.

한 고장의 승경, 풍물, 역사 등을 제재로 그곳을 상찬한 전례가 바로 <관동별곡>이다. 한 연에 한 고장을 배분함이 원칙이었으나 8연이 한계였으므로 예외도 두었다. <죽계별곡>은 바로 순흥의 자

97) 순흥 고을의 찬미란 주제를 ‘죽계별곡’이라 표제한 점도 우리의 주장에 무게를 실어준다. 이것은 죽계+별곡의 합성어다. 죽계는 태백산에서 발원하는데 그 산은 거대하고 물은 유원하다고 한다. 텍스트에서는 순흥의 대유로 사용되었다. 【山川竹溪】在順興府 距郡 二十三里. 李穡送安侍御詩序 順興安氏 世居竹溪之上 竹溪之源出於太白山 山之大而水之遠 安氏之興 其無窮乎. 신증승람 권 25, 풍기. 앞 책, 一四八. 한편 ‘別曲’은 고려시대에는 ‘순수한 우리 노래 즉 민요로서의 뜻이 강한’ 어휘였다고 한다. 박경우, 이른바 ‘별곡’이란 명칭에 대한 재론, 국어국문학 140(05, 9), 376면. 이 둘을 종합하면 ‘순흥이 보유한 자랑거리들을 속악 가락으로 부른 노래’라는 의미가 작품명 ‘죽계별곡’에 함축되었다고 하겠다.



랑거리를 5연으로 확장한 결과라 할 것이다.

조선 시대에 제작된 <구월산별곡>, <금성별곡>, <화전별곡> 등이 특정 지역을 배경으로 삼은 점에서는 모두 <죽계별곡>의 적자다. 그러나 그곳의 자랑거리가 경물이나 역사에서 가문의 화목과 번영, 인재 양육과 진출, 풍류 주색 등으로 전환된 점에서 달라진 면모를 보게 된다. 공동의 노래에서 개인의 노래로 변천하던 과도기적 징후라 하겠다. 부연하자면 제목이나 발상은 <죽계별곡>과 접맥되나 지향은 개인적 정서의 표출에 두었다는 것이다.

<죽계별곡>은 동종갈래에서만 원류적 좌표에 놓인다고 할 수 없다. 이종 갈래, 특히 풍물서정가사라는 가사 하위 장르도 그 자장권에 있다하여 무난할 듯하다.

즌 서리 싸진 후의 山밧치 금슈로다  
黃雲은 쏘 엇지 萬頃이 편 거지요  
漁笛도 흥을 계워 들릴 썩라 브니는다  
초목 다 진 후의 강산이 미물켜늘  
造物리 현스호야 氷雪노 꾸며 내니  
瓊宮瑤臺와 玉海銀山이 眼底에 버려세라  
乾坤도 가옴열샤 간 대마다 景이로다.<sup>98)</sup>

潭陽 企村의 풍광을 생동감 넘치게 묘사한 俛仰亭 宋純(1493~582)의 <俛仰亭歌> 일부다.

단풍 든 산을 ‘錦繡’, 벼가 누렇게 익은 들판을 ‘黃雲’, 눈 덮인 계산을 경궁요대와 옥해은산이라 미화했다.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정서적으로 미감이 충만한 고장이다. ‘산수의 아름다움을 남김없이 설파했고 구경하며 감상하는 즐거움을 펼쳤으니 가슴속에는 저절로 호연한 정취가 생긴다.’<sup>99)</sup>라는 홍만종의 평가에 공감이 간다.

98) 林基中, 『朝鮮朝의 歌辭』(成文閣, 1982), 29면.

99) 俛仰亭 宋二相純所製 說盡山水之勝 鋪張遊賞之樂 胸中自有浩然之氣 洪萬

산수의 수려함과 그곳을 구경하는 즐거움을 진술한 가사는 <면양정가> 이후 속출한다. 송강의 <關東別曲>과 <星山別曲>을 비롯하여 李倪의 <百祥樓歌>, 朴仁老의 <立巖別曲> 등 이른바 ‘風物敍景歌辭’라는 하위장르를 설정할 정도로 창작과 향유가 성행했다. 이런 유형의 작품은 가사 장르가 대두한 시기부터 쇠퇴하기까지 열의의 고저는 다름지언정 연면했다.<sup>100)</sup> 문학관습의 하나로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했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시적 자아 혹은 시적 청자가 寓居하는 고장을 찬미하는 문학 관습의 발원지는 어디일까? 문학사를 조감할 때 그것은 안축의 <죽계별곡>으로 소급할 수 있을 듯하다. 고장의 승경이나 풍물을 미화하는 가사에 한정시키는 한 입수된 자료에 국한한다면 <면양정가>가 효시다. 그러나 <면양정가>가 형상화한 작품 경향이 송순의 문학적 창의성의 발로라 보기는 어렵다. 당시에 유행하던 경기체가 장르에 동질적인 세계가 이미 보이기 때문이다. 한다면 송순은 경기체가 장르의 한 세계를 가사 장르에 이식, 발아시켰다는 공로로 평가될지언정 그 이상은 부당하다. 풍물서정가사는 <면양정가>를 넘어 상호 경쟁·보완 관계에 있던 경기체가 장르에서 그 기원을 탐색할 일이며 그 상한선은 결국 <죽계별곡>에 이르게 된다. 기타 시조나 잡가 장르에서 나타나는 고장 혹은 거처의 찬탄 역시 작품 예로 입증은 줄이지만 그 기원은 <죽계별곡>으로 소급되리라 여겨진다.

#### IV. 맺음말

이 연구가 지금까지 논의한 바를 결론적으로 요약하여 조목으로

宗, 旬五志』.

100) 風物敍景歌辭라는 하위 장르의 설정과 전개상에 대해서는 류연석, 『韓國歌辭文學史』(국학자료원, 1994), 73면 이후 참조.

보이면 이렇다.

1. <죽계별곡>은 안축이 고향 순흥을 안내하고 자랑하려는 의도의 형상화다. 때문에 신흥사대부의 향락적 정조, 계층의식의 우월성 과시보다는 고향의 자부심을 바탕으로 민족의식 고취라는 관점에서 읽기를 요구한다.

2. 첫 연은 지세와 인물 배출의 연관성, 제2연은 누정의 편답과 감흥, 제3연은 순흥의 교육열과 수령의 순행, 제4연은 순흥 기녀들의 관능미와 애정 표현, 끝 연은 사시 佳景과 민족 중흥을 각각 찬미했다.

3. 안축과 <죽계별곡>은 확립된 경기체가 모형선용, 경기체가 갈래의 중추적인 표현기법 구축, 향토 예찬의 시발이란 면에서 한국 문학사에 길이 기억될 것이다.

<죽계별곡>의 분석에서 얻어 낸 앞의 소득들이 다음 시대의 동종 내지 이웃 갈래들에 어떻게 접맥, 변용, 굴절, 왜곡되는지, 또 그 동인은 무엇인지를 규명함이 향후 과제로 남는다.

주제어(Key words): 애향심(Local patriotism), 민족의식(National spirit),  
자연 정기(Essence of nature), 누정(Turret),  
교육열(Enthusiasm for education),  
사시가경(Fine scenery always),  
율격모형선용(Good use of metric model),  
표현기법확립(Establishment of expressional technique)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고려사』권 74, 권 105, 권 109, 권110.

『한국문집총간』1, 2, 5, 26, 41.  
『東文選』권 66, 민족문화추진회, 『국역동문선』VI(1984)  
『세종실록』권 150.  
『順興誌』.  
『신증동국여지승람』권 24.  
성대 대동문화연구원영인 『禮記』 및 『詩經』  
『漢語大詞典』9,(漢語大詞典出版社, 1996)

## 2. 단행본

김옥동, 『수사학이란 무엇인가』(민은사, 02).  
김학주·정범진, 『중국문학사』(범학, 1979).  
류연석, 『韓國歌辭文學史』(국학자료원, 1994).  
박경주, 『경기체가 연구』(이회, 1996).  
成昊慶, 『朝鮮前期詩歌論』(새문사, 1988).  
辛恩卿, 『風流』-동아시아 美學의 근원-(보고사, 1999).  
양주동, 『여요전주』(을유문화사, 1985).  
李能和, 『朝鮮解語花史』한국학연구소 영인, 1977).  
이명구, 『고려가요의 연구』(신아사, 1973).  
임기중 편저, 『우리의 옛 노래』(현암사, 1993).  
林基中, 『朝鮮朝의 歌辭』(成文閣, 1982).  
조규익, 『高麗俗樂歌詞·景幾體歌·鮮初樂章』(한샘, 1994).  
조동일, 『한국문학의 갈래이론』(집문당, 1992).  
\_\_\_\_\_, 『한국문학통사』2(지식산업사, 05).  
조운제, 『한국문학사』(탐구당, 1981).  
Rene Wellek & Austin Warren, 『Theory of Literature』(penguin books).

## 3. 논문

고정희, 「元服屬期 신흥사대부의 계급의식과 安軸의 경기체가」 『한국  
문화』30(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02), 61~83면.

- 김동옥, 「<關東別曲><竹溪別曲>과 安軸의 歌文學」, 『泮橋語文論集』 1(1989), 80~119면.
- 金文基, 「景幾體歌의 綜合的 考察」, 權寧徹·金文基 外, 『韓國詩歌研究』(螢雪出版社, 1981), 115~39면.
- 김성룡, 「고려 중기 樓亭文學의 형성과 山水美 발견에 대한 연구」, 『국어교육연구』, 국어교육연구회(02), 319~46면.
- 金銀美, 「朝鮮初期 樓亭記의 研究」, 이화여대 학위논문(1991).
- 김창규, 「별곡체가의 내면적 성격 고찰」 『국어교육연구』6(경북사대, 1974), 1~40면.
- \_\_\_\_\_, 「竹溪別曲 評釋考」, 국어교육연구 12(경북사대, 1980), 27~57면.
- \_\_\_\_\_, 「竹溪別曲의 諸 問題」, 국어국문학 84(1980, 10), 193~8면.
- 박경우, 「이른바 ‘별곡’이란 명칭에 대한 재론」, 『국어국문학』140 (05, 9), 371~99면.
- 박노준, 「시가 연구 방법론 數題」, 한국시가학회, 『한국시가연구』제17 (2005,2), 5~16면.
- 신영명, 「景幾體歌의 갈래적 성격과 安軸의 자연관」, 우리어문연구 9집, 265~84면.
- 安自山, 「朝鮮詩歌의 苗脈」 『別乾坤』(1929, 12월호)
- 줄 고, 「安軸의 <關東別曲> 反芻」, 『韓民族語文學』47집(2005, 12), 197~242면.
- \_\_\_\_\_, 「安軸의 <관동별곡> 창작 시기와 그 배경」. 한국시가학회, 『한국시가연구』19(05. 11), 5~46면.
- 한창훈, 「謹齋 安軸(1282~1348)論」 『우리말어문연구』14(1995), 187~214면.

## An Another View on the <Jukgyae Byeolgok>

Jung, Moo-Ryong

This research intends to discuss the <Jukgyae Byeolgok> from new point of view and gains some results. We can summarize these as follows.

1. The <Jukgyae Byeolgok> is the figuration of purpose to guide and boast of the Sunheung which is An Chuk' hometown. So that this text claims to read it from the viewpoint of inspiring national consciousness on hometown' pride than the mood of pleasure-seeking, the pride of superiority of the class- consciousness of the newly arisen scholar officials.

2. The text is organized 5 stanzas. Summarizing the contents of every stanzas are as follows. 1st: Correlation between natural features and coming forward in succession of men. 2nd: A tour and fun through many storied buildings. 3rd: The ardour of the people of the Sunheung and royal tour of the magistrate. 4th: The beauty of senses and representations of affection of the Sunheung' dancing girls. 5th: the fine scenery of four seasons of the Sunheung and the restoration of nation.

3. Korean literary history will long remember the <Jukgyae Byeolgok> and its writer An Chuk because of the reasons that they make good use of the Gyeonggi-Chega's metric pattern which were established, construct the basis expressional technique for the genre of Gyeonggi-Chega, show the starting of the country's eulogy and so forth.

정무룡

경성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주소: 부산시 금정구 부곡1동 315-5(3/3)

전화번호: (051)620-4211, 514-0284.

전자우편: mrj@ks.ac.kr.

|       |                |        |
|-------|----------------|--------|
| 이 논문은 | 2007년 4월 29일   | 투고하여   |
|       | 2007년 6월 20일까지 | 심사완료하여 |
|       | 2007년 6월 30일   | 간행함    |